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2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2일) 2019년 2월 6일 수요일

美 동·서부 주요 도시 한국불교 수행법 전파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한인불자회 초청 방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 강남구에서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으로 전법활동에 매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LA · 뉴욕에서 각각 대규모 명상힐링대회를 연다. 국내서 2016 세계명상대전과 2018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개최하며 명상열풍을 주도해온 각산 스님이 미국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은 오는 3월 22~24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미국 LA 고려사에서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명상대회'를 개최한다. 월간잡지 미주현대불교 창간 30주년을 맞아 함께 기획된 이번 명상대회는 미국 한인 수행자모임이 각산 스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수행지도를 초청하며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산 스님은 2박3일간 LA에 거주하는 한인불자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초기불교와 간화선 수행법을 전하며 진정한 '이뭣고' 화두를 전할 계획이다. 스님은 수년 전부터 참불선원에서 부처님 당시 전통가르침인 호흡명상(아나빠나사띠)을 현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사마타-위빠사나 통찰 집중명상을 가르쳤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행자들의 기초를 다지고 '이뭣고' 화두로 이끌어 직접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

현재 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원익 법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2박3일 집중수행 참가자 100명과 법회참가자 등 5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신문, 라디오,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진행중이다.

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초청법회 형식이 아닌 미국사회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상을 테마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을 전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실참과 법문, 지도가 병행돼 참가자들의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각산 스님은 1월 30일 본지에 "LA 한인불자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150여 명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한번 수행법을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한인불자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승려로서 변변찮은 수행자인 제가 한국불교 수행법을 알리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각산 스님은 이어 "미국 내 명상열풍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스티브 잡스는 묵조선을 했다. 하지만 묵조선보다 더 쉬운 것이 간화선이다. 다만 국내에서 '간화학'처럼 다뤄지고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일반초청법문이 아니라 수행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또 다른 수행의 묘미를 전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각산 스님은 3월 LA 명상힐링대회에 이어 오는 10월 11~13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같은 수행프로그램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 대회 역시 LA와 마찬가지로 뉴욕 한인불자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회 일정만 정해졌지만 유력한 대회 장소로 뉴욕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도 2박3일 집중수행과 명상힐링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3월 LA · 10월 뉴욕서 각각
'대중 명상힐링대회' 예고
일반적인 초청법회 벗어나
실참 · 법문 · 지도 수행중심

위빠사나 중심 미국사회에
초기불교-간화선 통합수행
개개인 느끼도록 지도 계획
세계명상대전 후속 순례도

각산 스님은 각각 미국 동 · 서부 명상힐링대회를 마친 뒤에는 2016년 세계명상대전에 법사로 참여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찾아가는 '세계명상대전 순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시 명상대전에는 국내 선수행을 대표하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비롯해 태국 아잔 간하, 호주 아잔 브람, 대만 심도 선사가 한자리에 모여 불법(佛法)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각산 스님은 불자들과 4개국을 차례로 순례하며 대중 명상캠프를 열 계획이다.

한편 미국사회서 명상은 하나의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수행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업체 22%가 명상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21% 기업도 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중이다. 특히 2017년 약 12억 달러로 추산된 명상산업 규모가 매년 약 11%씩 성장해 2022년쯤 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미국 내에서 전망하고 있다.



설날, 조계사 떡국 드세요 서울 조계사는 설날을 맞아 1월 29일 쪽방촌, 고시원,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휴게소 등 종로구 관내 이웃들과 총 1430kg의 떡국떡을 함께 나누며 새해를 준비했다. 29일 아침 조계사 방앗간에서 원주 명경 스님과 신도들이 이웃들과 함께 할 떡국떡을 준비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총장 후보 윤성이 · 이은기 · 조의연 압축

총추위, 1월 30일 회의서 결정
2월 8일 이사회서 총장 선출


윤성이 교수


이은기 교수


조의연 교수

〈가나다 순〉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 최종 후보에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은기(서강대)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최종 선출됐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월 3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총추위는 최종 후보 인원으로 3명을 선발해 이사회에 올리기로 했다. 총추위 규정에 따라 외부인사인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투표와 상관없이 자동 진출하게 됐다. 이후 총추위는 결의 직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개표결과 윤성이 · 이은기 · 조의연 교수가 동국대 제19대 총장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2월 8일 후보로 추천된 3인 중 1인을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제19대 동국대 총장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후보로 선정된 윤성이 교수는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온 것이 강점이다.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윤성이 교수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건학이념 △지속경영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등 4개 분야 역량 강화 20개 과제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산업진흥원은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 실습 또는 취업 기획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대학 평가 100위 이내 10개학과 보유대학 및 국내 10위권 대학 위상을 비롯해 1000억 원대 연구비 조성 · 50%대 등록금 의존율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외에서 많은 활동을 이뤄왔으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재 활동 중이며, 동국대 법인 이사이기도 하다. 이은기 교수는 △이공대 · 연극영화학부 집중 육성 △야간 로스쿨 설립 △명상 일상화 통한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시드머니 1조원 조성을 공언했다.

조의연 교수는 경영관리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교내 행정에 밝으며, 대내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강하다. 또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불교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의연 교수는 "공감, 공유, 공영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내 · 외부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겠다"며 'PROMISE 2019~2022'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과 지역사회 · 구성원과의 연합을 위해 고양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부총장 · 행정처장 직제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18일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위한 4자협의체(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법인사무처)간 논의 끝에 기존방식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1월 15~16일 양일간 제19대 총장 후보자를 접수받아 총 10명이 총장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총추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견 발표를 진행했으며 사상 최초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1월 28일 개최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연등 자동승강장치 최초 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조계종 스님,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승려복지회,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모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현재 1800명 수준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또한 예방접종비 ·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승려복지제도를 마련, 한해 동안 개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승려복지회는 2017년부터 매년 국민연금보험료를 확대 지원해왔다. 2017년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에 이어 올해는 보험료 전액인 3만6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가 일반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출가수행자의 소득보장에 필수적인 제도다. 이에 조계종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납부예외자인 스님들의 임의가입을 제도화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보험료 전액 3만6000원은 스님들의 평균소득을 월 40만원으로 신고해 산출된 금액이다. 일반인 최저가입액 8만9100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담은 낮추고, 보장액은 높였다. 스님들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20년간 납부할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약 28만원이다. 납부한 금액 대비 약 7.8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일반인이 최저가입액으로 20년간 납부해 받는 매월 약 34만원(3.8배)보다 보장률이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종단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스님은 1770명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55세 미만 비구 · 비구니가 6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숫자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더 많은 스님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개별 스님들이 가입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해 전산화 작업을 거쳐 각 교구본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국가복지제도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360개에 달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요양등급, 기초연금, 10.27법난 피해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해 스님들이 국가와 종단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승려복지회 올해 지원계획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매월 3만6000원

정밀건강검진비
각 50만원(100명)

예방접종비 · 간병비
지원 규모 논의 중

지난해 1만8000원에 이어
올해 3만6000원씩 지원돼
현재 가입자 1770명 수준
“더 많은 스님들 혜택 받길”

승려복지회는 또한 지난해에 실시했지만 신청이 많지 않았던 정밀검진비 지원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정밀검진비 지원은 100명의 스님에게 각각 50만원씩 지원해 동국대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올해 대상포진과 폐렴,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외에 승려 입원진료비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스님들을 돕는 간병비 지원 제도도 올해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간병비 명목으로 모연된 후원금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기간, 금액 등을 정해 지원에 나선다.

승려복지회는 장기적으로 보훈처의 보훈복지사와 비슷한 개념의 ‘승보공양복지사’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보훈복지사는 각 병원에 배치돼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업으로, 보훈관련 서비스를 대상자들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복지사를 통해 스님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국가 · 종단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02)2011-1726

조계종 사찰 60% 소임공제 이용

종교인과세 시행 1년, 승려 4265명 소득 신고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현재, 불교계 장자종단 조계종은 전체 사찰 중 60%가량이 종단 재무부를 통해 소임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소임공제 신청 사찰은 총 2853곳 중 1648곳으로 집계됐다. 공찰은 695곳, 사설사암은 953곳이었다. 또한 1년간 4265명의 스님들이 재무부를 통해 소임공제를 했다. 여기에는 고정급여 형태의 보시금뿐만 아니라 강연비 등 1회성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재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일부 사찰과 스님을 포함하면 소득신고율은 60% 수준인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과세 · 비과세 포함 2018년 국세청 신고 총액은 574억여 원이다. 소득세액은 약 4억3100만원. 개인으로 구분했을 때는 4265명 중 약 51%가 연간 1200만원 미만 소득자였다. 특히 연간 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스님들은 28%(11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1800만원 미만 기준 시에는 71%였다. 2400~3000만원은 292명(6.85%), 3000만원 이상은 340명(7.97%)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스님들에게는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고액 대비 납부 소득세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 문의결과 올해부터는 출장비를 신고 대상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는 회의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종교인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스님들의 법문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문 자체가 불교 고유의 활동인데다 일반사회의 강연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법문을 강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문은 시간당 일정 보수를 받는 강연과 다르고, 법문비 역시 예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종교의 이해 부족”이라며 “개신교의 경우 A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받는 금액은 소속이 달라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스님들은 하나의 조계종 소속이기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원행 스님(사진 가운데)과 정재숙 청장(오른쪽 네번째) 등 조계종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예방 후 기념촬영한 모습.

“불교문화재 관리에 관심 가져달라”

원행 스님, 1월 31일 정재숙 청장 예방서 강조

“국가 유형문화재 60%가 불교문화재인데 불교계 문화재위원은 4%에 불과합니다. 불교문화재 관계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31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교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 문화재위원은 전체 263명 중 11명에 불과하다”면서 “불교계 문화재위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면단위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700의종 하나 관리에만 몇십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며 “국보, 보물을 수십 점 보유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관리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 적다. 점단위가 아닌 면단위 관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재숙 청장은 “불교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화답하며 “문화유산을 보존 · 관리하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계종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감리 부실 우려되는 문화재 보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전문공무원 부재 문제제기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모두 선정함에 따라 감리의 독립성 미확보 및 문화재 수리 감리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화재청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계종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자체 일반공무원 가운데 전문가가 없어 감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리 실무자가 임명되도록 종단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1월 28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제60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문화재 정비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선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 ‘감리’ 라는 말은 불사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감리감독 선정을 맡기는 건 지자체가 불사 관련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제 공무원 가운데 문화재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제60차 회의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지자체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종단이 정부와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불사 완료 후에 문화재를 소유하는 사찰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바도 있었다. 해결방법은 현재 소송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인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은 “감리비 선정 기준이 과거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이었는데 기준 적용도 흐지부지 되다가 현재는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덕문 스님은 “감리 및 설계비용이 24%에 달한다”며 “그럼 실질적인 공사비용은 35~40%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 보수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승려복지에 관한 회의에서 주지 및 국장 소임자의 복지 혜택이 이중 적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승려복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비구니 종회의원 2석 정현 · 운산 스님 추천

1월 30일 선원 · 강원 재선거

현재 공석인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의원 2석에 정현 스님(법룡사 주지)과 운산 스님(운문사 주지)이 후보로 선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월 30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서 제2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 정현 스님(선원)과 운산 스님(강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시 10명의 후보를 선출하려 했으나 서류미비 등 문제가 발생해 총 8명의 후보만을 종단에 추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7대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정원 81명이 아닌 79명으로 개원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선원 부문에 정현 스님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강원 부문에는 효탄 스님과 운산 스님이 입후보했으며, 투표 결과 운산 스님이 54표를 얻어 종회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투표에는 운영위원 총 82명이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
담불라-시기리야-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라오스/베트남 6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 열린다

범국민대회준비위, 1월 29일 기자회견서 계획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장에서 범국민적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김경민 · 김전승, 이하 범국민대회준비위)는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 추진 계획을 밝혔다.

3.1운동 100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열리는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는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대회는 오롯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치러진다. 종교계에서는 불교를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개 종교가 모두 참여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대거 동참한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하며,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뜻을 같이 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는 종교와 성 · 계층 · 지역 · 세대 · 정파를 망라해 민족 통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는 1부에서는 33인의 기미독립선언문 낭독과 시민합창단 공연, '남북 평화의 떡 나눔 잔치'가 열린다. '남북 평화의 떡 나눔 잔치'는 한반도 팔도의 명물 특산품 떡 3만 명분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울 · 평양 · 판문점에서도 동시에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불교 등 각계 1000여 단체들 참여
3월 1일 광화문광장서 대회 개최
3부 구성… 100주년 선언문 발표
원행 스님 "3월1일 광장서 만나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는 2부에서는 남과 북, 해외 인사들의 영상메시지 상영과 '3.1운동 100년 범국민선언문'이 발표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선언문'은 현재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종교계 · 역사학계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초안을 마련 중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종교 · 성별 ·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해 각계 인사 100인을 위촉해 숙의 토론 후 선언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축사를 통해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3부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다지는 '만북울림'과 영산줄다리기(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가 진행된다. '만북울림'은 풍물과 북을 울리며 세종대로를 행진하는 행사로 시민 참가단 8천여 명이 함께 하며, 대회 마지막 순서인 영산줄다리기는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3.1운동 범국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은 뭇 생명의 자주와 독립을 밝히는 선언이자,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원이었다. 낡고 오래된 체제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사자후였다"면서 "3.1 운동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임시정부의 수립이 이어졌다.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은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겠다.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힘찬 북소리에 흥겹게 춤추고 환호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주 독립선언이자 세계 인권 선언인 3.1운동의 참된 뜻을 새겨야 한다.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도 "한국 주요 종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식민과 분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고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범국민대회준비위는 범국민선언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반도가 영구적 평화지대임을 선언한다'는 시대정신을 선언문에 담겠다"고 천명한 준비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시 광장에 모이고자 한다. 운동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분단의 상흔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려 한다"며 "3.1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국민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대회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모두 죄인… 노동인권 관심을"

故김용균 노동자 유족 예방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강조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고인의 유족 및 故김용균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예방을 받고,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 다시는 용균이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 사고로 숨졌다. 고인의 유족 및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가 실제로 이행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질 때까지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이 같은 상황서 故김용균(24) 노동자의 영혼만이라도 위로하자는 취지로 1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49재를 봉행했다. 또한 1월 31일, 서울 조계사서 광화문 분향소와 단식농성장을 거쳐 청와대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즉각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 바 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원행 스님에게 "1년에 약 2500명이 안전장치 없이 죽어간다. 용균이는 수많은 죽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엄청난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에 말씀을 전해주길 청한다. 부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원행 스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죽음이지만 나 역시 이전까지 잘 알지 못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며 "불교계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는 데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부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


원행 스님이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 입관식 조계종 사노위가 봉행

고인의 뜻 따라 불교식 장례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인 故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타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서 고인의 입관식을 봉행했다.

사노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수년간 동참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교류하게 됐다. 이 인연으로 정대협은 독실한 불자인 故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사노위 측에 불교적 입관식을 주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노위는 "고인은 다라니경전과 염주를 관에 함께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며 "국제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할 때까지 사노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약속 지킨 동국대…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1월 30일 직원증 수여식 개최
2월 1일로 97명 정규직 전환
자광 스님 "주인의식 가져달라"
"감사 또 감사… 최선 다할 것"

동국대(총장 보광)가 지난해 청소노동자들과 합의한 '직접고용' 약속을 지켰다.

동국대는 2월 1일자로 97명의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1월 3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를 기념해 '동국대 직접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과 청소노동자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과 보광 스님은 대표 10명에게 단주와 직원증을 직접 나눠주며 동국식구가 된 것을 격려했다.

동국대의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은 지난해 4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1월 29일부터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4일 86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당시 동국대는 청소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약속했고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측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한국노총 한국철도 · 사회산업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미화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2월 1일자로 직접고용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직원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단주를 직접 하사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97명 전원은 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직원증 수여 직후 자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청소노동자들은 학생 · 교수 · 교직원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지켜주는 안주인"이라며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전원 정규직 전환은 학교로서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 일은 잊고 동국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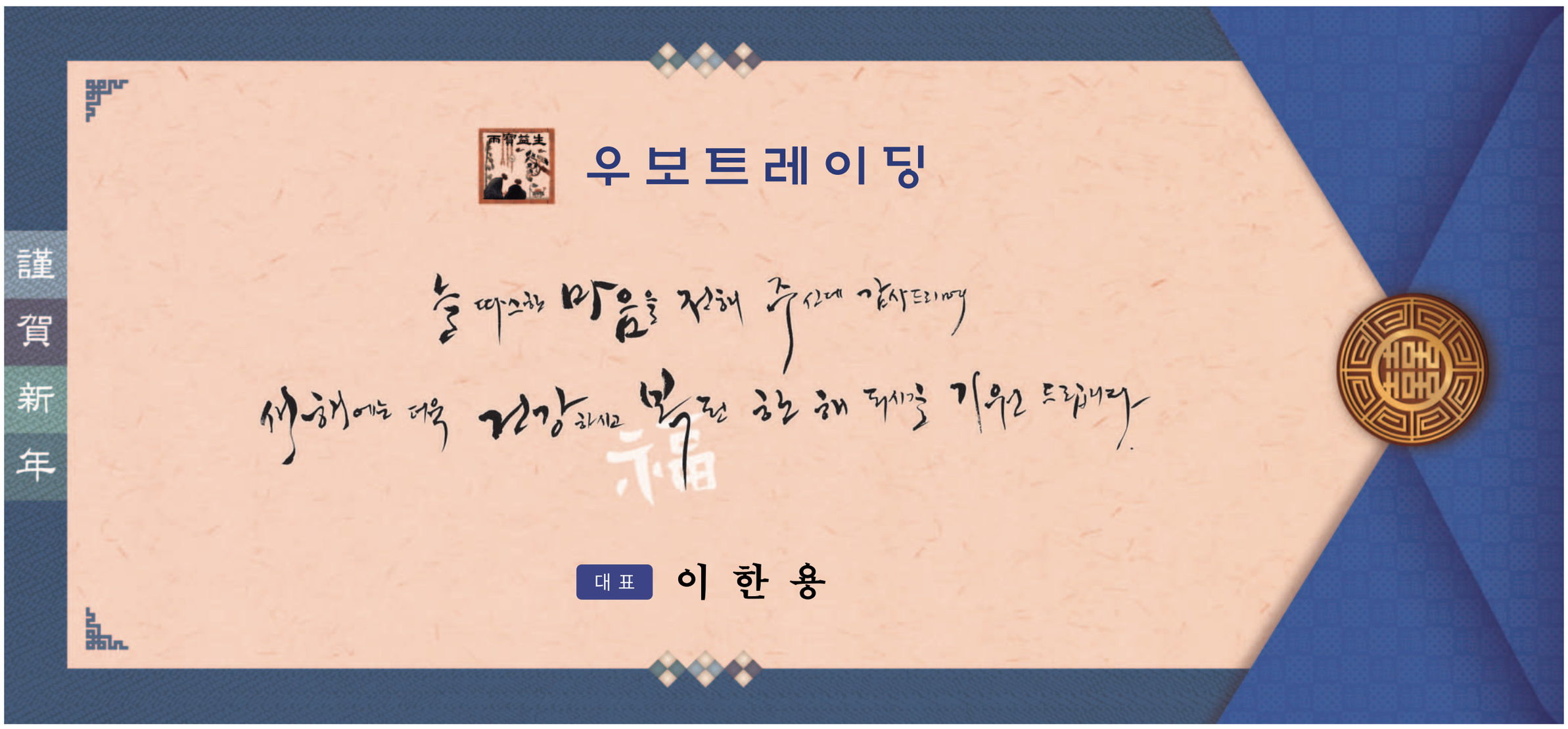
청소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약속을 지킨 학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은 "학교 측의 결단에 감사하다.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봤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청소노동자들은 정년이 65세이며, 이후 촉탁직으로 최대 71세(현재 만 61세 이상자부터 해당)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전환자의 복리후생은 학교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사립대학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적었던 만큼, 앞으로 동국대의 직접고용 사례가 모범이 될 전망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화합과 상생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초석 다지기 나선 조계사

1월 29일 신년사업 계획 발표
'미래세대 터전 확보' 주제로

3월 청년센터, 8월 어린이집 개원
마을자치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
VMS로 사찰 봉사 조직화, 체계화
기도 기반 강좌 '시절인연' 운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가 '어린이집'과 '청년센터' 등 한국불교 미래동량을 키워내는 터전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29일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관음전)에서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사는 올해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어린이·청소년·청년불자 포교의 모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및 전법활동 강화 △신도만족을 위한 교육 및 기도문화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개원, 새싹 포교 시동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불사가 시작된 조계사 어린이집이다. 조계사는 옛 을유문화사를 인수해 어린이집 용도로 활용키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 직영으로 내진설계 보강공사 등을 거쳐 8월 경 개원할 예정이다.

조계사 어린이집은 연면적 754.35㎡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0세부터 5세까지 총 97명을 정원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저녁시간에도 아이를 돌봐준다.

조계사가 위치한 종로구는 초중학생이 서울시 25개 구 중 24번째로 매우 적지만, 주요 직장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

이와 함께 올 3월 조계사 수송공원 인근에 조계사 청년센터가 세워진다. 조계사 청년센터는 연면적 332.33㎡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올해 불교계 최초로 수탁운영하는 종로구 마을자치센터가 위치하며 2층 청년회 사무실, 3~4층은 법당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불교중흥의 길은 결국 사람을 길러내는 것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커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계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사찰 서비스 눈길

이와 함께 1월 4일 종로구로부터 수탁 받은 마을자치센터 운영도 본격화 된다. 조계사는 2001년부터 어르신 복지사업과 어린이집 수탁 운영 등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마을자치센터는 종로구 관내 17개 동을 직접 찾아가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다. 조계사는 현재 직원 모집을 마치고 시범동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도입한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을 활용해 그동안 사찰 내의 봉사조직을 사회적인 봉사조직으로 키워내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VMS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기록해 지표로 남기는 사회봉사시스템이다. 조계사는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피자원봉사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찰 촉지도 등 장애인 시설에 이어 올해는 장애인 야경템플스테이 등 소외계층을 위해 조계사 문턱도 더욱 낮아진다. 또 불교활동가상 제정사업도 진행돼 불교활동가의 발굴 및 지원도 이뤄진다.

지현 스님은 "이제 사찰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마을로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공부·수행·체험 새 문화 형성

이와 함께 조계사 기도 또한 다양한 기도에 대한 기획강좌를 통해 알고 하는 기도, 배우며 함께 수행하는 기도로 변모한다.

조계사는 올해 기도 기획강좌 '시절인연'을 통해 각 기도에 맞는 연계강좌를 연다. 또 전각 특색에 맞는 기도를 정착화시킨다. 이와 함께 극락전 1000불 조성불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근 중국 여행정보플랫폼인 '마펑워'에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새 명소' 10곳 중 1위를 차지한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더욱 확장한다.

호평을 받고 있는 야경템플스테이와 함께 나눔을 골자로 수험생 가족 무료템플스테이, 퇴직자, 탈북민, 장애인, 교화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 템플스테이 등이 펼쳐진다.

또 신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축제위를 구성해 기존 연꽃축제와 국화축제도 새로운 기획을 통해 재구성된다.

지현 스님은 "올 한 해는 한국불교 미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아, 수행과 신행을 씨줄로, 포교와 전법을 날줄로 삼는 경천 위지의 마음으로 신행모범도량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대중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불련 2월 23일 송광사서 신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가 올해 송광사 신년법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불자 신심증장에 나선다.

공불련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신년법회를 겸한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이날 법회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을 법사로 공무원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상규 회장을 비롯해 허석 순천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축사를 진행하며, 사천시청불자회의 축가무대도 이어진다.

23일 저녁에는 송광사 사자루에서 참선 철야정진이 진행되며 24일 새벽 예불 종료후 금강경 독송 및 108배로 마무리된다. 회향을 앞두고는 불일암 순례도 진행된다.

공불련 측은 "새해를 여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철야정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년부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불련은 올해 상반기 합동수계법회, 하반기 창립기념법회 등 정기적인 회원 교류의 장을 열고, 7~8월 해외불교 성지순례와 오는 12월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실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3월 생활참선 봄학기 개강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함께 생활참선 강좌를 연다. 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강좌는 입문, 심화, 전문코스로 구성돼 있다.

먼저 생활참선 입문코스는 3월 8일 개강한다. 5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3강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생활참선 심화코스는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7강에 걸쳐 진행된다.

심화코스에 이은 전문코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6강에 걸쳐 진행되며 대혜 선사의 〈서장〉을 교재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교인재원은 이와 함께 불교참선 이론과 실참을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참선 마당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코스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함께 명상지도사 2급, 1급,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02)1661-1108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조직 수술대 오른다

29일 신년 기자회견서 전면 개편 계획 발표

복지행정 투명성 강화 위해
팀 재구성·복식회계 등 도입
내부 직원 및 신규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설…인적 혁신도
소통창구 확대 필요성 확인

조계종복지재단이 조직을 전면 개편해 복지행정을 쇄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 이하 복지재단)은 1월 29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복지재단은 '화합과 혁신으로 불교사회복지 미래 주도'를 종무기조로, 내부 혁신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창립 2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중장기 비전 및 실행전략을 수립할 것을 다짐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재단 혁신을 위해 전면적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며, 회계 및 후원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핵심과제로 △교구본사사회복지법인 협의회(가칭) 구성 △불교사회복지 인재 육성 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횡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회계형식을 교체하고, 사무처장(스님)·복지정책관(재가·가칭) 소임을 추가한다는 대책을 밝혔다.

보인 스님은 "한정된 인원으로 산하 180여 시설 및 법인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상임이사 외에 교역직 스님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최종환 기존사무국장을 복지정책관(가칭) 소임으로 변경, 재가자 가운데 신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부 9팀이었던 조직구성 역시 실무라인 팀장 중심으로 통폐합해 5~6개 팀으로 개편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이 2019년 종무기조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환 복지정책관(가칭)은 "재단 내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팀수를 줄여 중간 결재 과정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재단은 현재 총 14개 교구본사 이외에도 해마다 1곳씩 사회복지법인을 추가 설립·운영함으로써 '교구중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칭) 회장직은 교구본사와 협의 후 결정된다.

올해 재단은 제25교구 봉선사와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월 중순경부터는 화엄사·용주사·백양사 주지스님들과 대면 접촉해 시설 유치 필요성 및 적극 지원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자리서 기존 봉사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비에도 대비해야한다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은 "연 1회 팀장 간담회를 열어 봉사팀 내 애로사항을 듣고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충원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조사 후 주변 사찰에 공문을 보내 봉사자를 연계하고 있다. 신규교육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소통창구를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복지재단은 올해 직할자원봉사단 61개 팀이 참여하는 역량결집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직무윤리·인성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등 인적 혁신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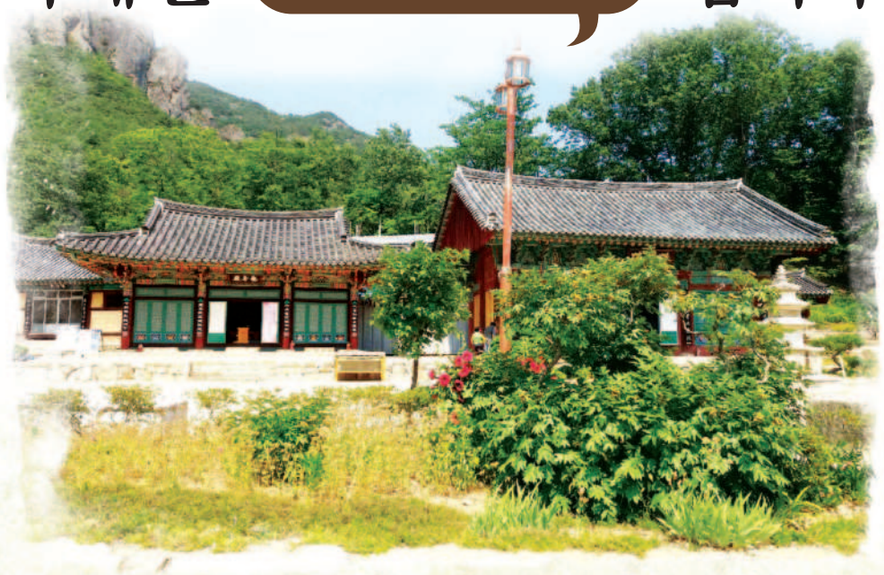
보인 스님은 "최근 1년 사이 상임이사직 교체가 잦았던 것은 이전 재단이 혼란스런 상황의 책임 선상에 있음과 동시에 건강 등 개인 일신 상의 문제로 인한 점도 있다"며 "내부 혁신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횡령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송치된 상황으로, 횡령 규모에 대해 복지재단과 당사자 측 주장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측은 최초 횡령액인 6억 3천만 원이라 주장, 복지재단은 횡령 규모를 그 이상인 약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적인 관리자 문책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추가 민사고소 진행 중이다.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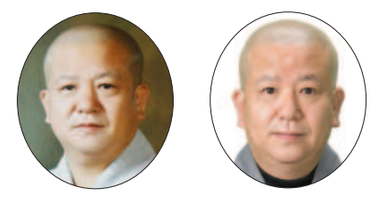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신영경로당을 방문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정관 스님과 35여 회원 어르신들이 떡국 세트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기업 · 개인 후원을 받아 준비한 이번 설 음식선물세트에는 사골떡국 이외에도 쌀, 라면, 귤 등이 포함됐다.

“설 앞두고 함께 자비, 나누는 福”

불교계 다채로운 명절맞이 기념행사 눈길

글=김지원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황금돼지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 떡국 끓여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서울 종로구 신영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설 선물 박스가 도착했다. 선물을 준비한 이들은 바로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과 직원들. 박스에 담긴 쌀, 곰탕, 과일, 떡, 한과 등을 꺼내보며 기뻐하는 어르신들 모습에 경로당은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다.

관장 정관 스님과 종로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홀몸어르신 가정 및 경로기관을 방문해 새해 선물을 나누며 건강과 복을 기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29일 부암동 거주 어르신들이 모인 신영경로당(회장 김덕수)과 차정숙(91)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 ‘설맞이 선물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복지관은 이 두 곳과 함께,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종로구 61개소 경로당과 독거노인 560명에게 설 음식 세트를 전달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매해 명절마다 직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홀몸어르신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한다”며 “온 가족이 모이는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덕담도 주고받고자 한다. 복지관과 같은 마음으로 후원해준 우리은행, 하이트진로, 개인 후원자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신영경로당은 지난해 4월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 5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돼 있다. 이번 나눔은 회장인 김덕수 어르신의 적극적인 방문요청으로 인해 신영경로당서 진행됐다.

회장 김덕수(79) 어르신은 “설을 앞두고 스님을 직접 뵙고 선물도 받아서 다들 정말 기뻐하는 것 같다”며 “관장 스님이 직접 경로당과 주변을 돌아보며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주니 모두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복지관서 4년째 도시락 포장 봉사를 하고 있는 정대덕(80) 어르신은 “평소 경로당에 올 때 마다 관장 스님에 대해 자랑했는데, 우리 경로당에 올 줄 몰랐다. 다들 너무 좋아한다”며 “이번 행사 이후 경로당 회원들이 복지관에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정관 스님은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다. 스님은 “복지관까지 오는 셔틀버스가 12년이나 돼 겨울엔 춥고 열악했다. 이번에 종로구청의 도움으로 노후된 버스를 교체했다”며 “히터가 빵빵 나오는 새 버스를 타고 우리 복지관에 와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체험해보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에 이어 이들은 혼자 사는 차정숙(91) 어르신 가정도 방문했다.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종로노인복지관을 다니다가 고령의 나이 때문에 약 5년 전부터 복지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은 시설 방문이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담당 관리사에게 주 3회 이상 안전확인을 받는다. 복지관은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전화를 걸고, 주 1회 방문 및 후원금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5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이용을 중단한 차정숙 홀몸어르신(91)이 정관 스님의 방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쌀 · 과일 등 선물 전달
소외어르신들 情 나눠

불자인 어르신에게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자, 차정숙 어르신은 “전엔 산에 있는 절도 종종 다녔는데 이제는 높은 곳에는 가기가 힘들어 못 간다. 집에서 조계사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가끔 가고 있다”며 “귀한 스님이 이렇게 혼자 사는 늙은이 집까지 찾아주니 내가 올해 복 받았다”고 울먹였다.

권미경(60)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차정숙 어르신과 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늘 관장 스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잘 때지 않는 보일러도 켜고, 차도 직접 준비했다. 저렇게 기뻐하시니 설을 앞두고 훈훈해진다”고 말했다.

차 어르신은 “스님 덕분에 오는 복지관 선생님마다 다정하고 위로를 잘 해준다. 전화를 받으면 힘이 난다”며 “김이며 배 등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갖다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연로한 나이로 시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약소하지만 준비한 선물을 잘 써주면 좋겠다.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 불교계는 설과 정월대보름 등 명절맞이 기념행사가 한창이다. 저소득, 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하고, 떡국 등 명절음식을 대접하거나 치매어르신을 위한 후원 세뱃돈 봉투를 제작해 지원하기도 한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1월 29일 복지관 3층 강당 및 식당서 ‘설맞이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강북구 저소득 장애인 및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 백미지원 및 떡국 대중공양은 화계사(주지 수암)의 지원을 받았다. 복지관은 행사를 통해 대상자 200명에게 백미 2,000kg을 지원하고 보호자 등과 명절음식을 나눴다.

조석영 관장은 “장애인과 주민들이 명절날 박탈감 대신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가정에는 직접 배달하며 설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새해에도 주변 이웃들의 소중함을 알고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떡국 · 먹거리 가득, 설 선물 풍성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떡만두국 · 복조리 기금 모금
~2월 18일 (02)989-4215

영등포보현의집
노숙인 민속놀이 및 공동차례 진행
2월 3~6일 (02)2069-1601

남양주 성림케어덕소센터요양원
치매어르신 복 봉투 후원
2월 2일 (031)553-2001

경북 영주시노인복지관
온수매트 등 설맞이 월동용품 지원
2월 중 (054)632-9100

경북 의성군노인복지관
세배 및 선물나눔, 문화행사
2월 13일 (054)833-6006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 다문화가정 설 선물세트 전달
~2월 1일 (051)271-0561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새해인사 및 다과 나눔
2월 1일 (061)536-6311

다같이 부럼 깨며 소원 빌까요?

서울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정월대보름 부럼 나눔
2월 19일 (02)458-1664

전남 여수시노인복지관
오곡밥 대중공양 및 전통놀이 체험
2월 15일 (061)685-2381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졸업생과 주지 스님이 졸업식을 기념하는 모습.

“불교대학 졸업, 생활 속 수행을”

위례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28기 졸업식

위례 대원사(주지 진호)는 1월 31일 대원사 대웅전에서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제2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보연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해 졸업한 28기 불자들을 축하했다.

청량불교대학장 진호 스님은 “7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며 익힌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며 “불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반추해보라”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는 불자가 되기 위해 함께 정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신광철 씨는 “지난해 스님을 만나 처음으로 불교공부를 한 것이 어제와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며 “세월이 빠른 만큼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스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기해 수계법회도 진행됐다. 수계법회서는 17명의 졸업생 외에도 대중이 함께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의 삶을 서원했다.

졸업식이 열린 위례 대원사는 위례지역 도심포교당으로 문을 연 후 위례신도시 개발로 종교부지를 매입,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진호 스님은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불교대학을 통해 불교 사상을 전하고 있다. 위례 대원사는 올해 4월 7일 개산법회를 열고 도심포교의 첫 발을 디딘다.

진호 스님은 “하남을 비롯해 서울 위성도시로 많은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다. 여력이 된다면 도심포교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소자들과 함께한 합동차례

군산 성흥사, 군산교도소서 재소자 위로

군산 성흥사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합동차례를 개최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영산작법 보존회 법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전북교구 스님들과 김영식 군산교도소장, 이덕순 성흥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한 합동차례와 법회는 축사, 법어, 합동차례, 영산작법, 국악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조상님과 부모님께 공양올리는 자리”라며 “차례상에 잔을 올려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월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을 크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대자비다. 다툼에는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참회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식 소장은 “설을 맞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0여 재소자들의 합동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전북영산작법 보존회스님들은 영가 천도의식을 집전했다. 이어 김연화 국악원장 등의 국악공연과 가수 이옥선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성흥사 신도회와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재소자들에게 1000명분의 떡과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형유산 전수할 ‘염불원’ 연다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대학원 최초 개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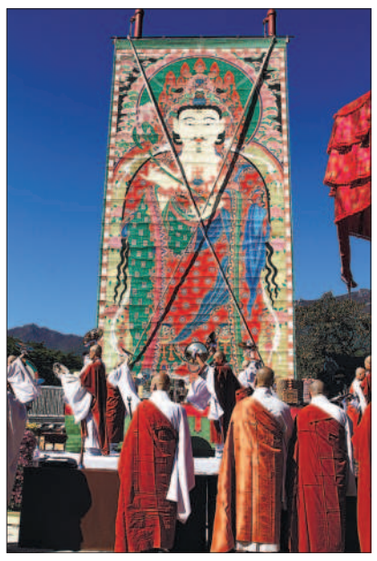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불교 무형문화 전수에도 힘을 쏟는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오는 3월 6일 조계종 총림 최초로 염불대학원을 열고 전문 교육을 시작한다. 총림은 선(禪)·교(敎)·율(律)을 겸비한 방장 스님 아래 후학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수행도량이다. 따라서 선원과 강원, 율원 그리고 ‘염불원’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계종 총림인 영축총림 통도사,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 팔공총림 동화사, 금정총림 범어사, 쌍계총림 쌍계사 가운데 염불원은 단 한 곳도 없다.

통도사가 염불대학원을 여는 것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불교 전통 의례의식을 강조해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교육원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선종을 중시 여긴 정서로 외면당했던 한국불교 의식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첫 발걸음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염불대학원은 본과반 2년 과정과 전문어산반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본과반 △상용의식 및 재의식(도량석·종성·예불·불공·49재·각종 시식 및 영반) △불전사물(목탕·요령·법고·태징) △기본작법(바라무·나비무)이다. 전문어산반은 △상주권공재·수륙재·예수재 △작법(바라무·나비무·법고무·타주무) △복장 및 점안 의식이며 이외 지화장엄, 괴임새 등 장엄 분야도 이어진다. 특히 우리말 의식을 강조해 현대화를 이끌고 티베트, 대만 등 해외 사찰을 방문해 비교 연구하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진다.

3월 6일 조계종 총림 최초로
본과반 2년·전문어산반 3년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자격도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맡아


통도사가 총림 가운데 유일하게 염불대학원을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개산대재 당시 괘불이운 헌공 모습.

응시 자격은 조계종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2019년 구족계 수계 예정자도 가능)이며 모집 마감은 2월 28일이다. 모집요강은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입학식은 3월 6일 오후 1시 설선당에서 열린다. 졸업 후에는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염불대학원 전문반 입학 자격을 얻는다. 염불대학원장은 통도사 노전 영산 스님이 임명됐다.

영산 스님은 조계종 염불 교수사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이다. 교수사는 혜일 스님, 도경 스님이 담당한다. 혜일 스님은 불찬범음의례연구소 소장과 불찬범음의례교육원 학장을 맡고 있다. 도경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며 불찬범음의례교육원 교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총림 구성요소인 염불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두돼 왔다”며 “특히 통도사는 화엄산림 및 개산대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지속적인 의식재현으로 교육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영남지역에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은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만큼 가치 있는 불교문화”라며 “불교 전통의식은 종합예술이다. 앞으로 문화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의식으로 법고창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055)382-7182

“염불 공양 올리고 인재 키워요”

불교TV염불공양회 ‘제20회 장학금전달식’

염불을 공양하는 모임 ‘불교TV염불공양회’가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와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이하 염불공양회)는 1월 25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하정선 회장을 비롯해 50여 회원들은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원, 중고등학생 9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지원했다. 20년 동안 염불공양회는 매년 10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후원한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다.

장학금은 봉사활동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전액 마련됐다. 장학금 전달을 하게 된 계기는 시다림 염불 봉사를 위해 방문한 가정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도움이 될 방법을 강구한 것이 시작이 됐다.

하정선 회장은 “시다림 염불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됐다”며 “더 많은 장학금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염불 봉사를 하는 주부 불자들의 모임이다. 하정선 회장은 가난 때문에 평생 불자였던 사람이 임종 후 장례식에서 염불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자를 모아 염불봉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봉사비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임종으로 슬픔을 겪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영가를 위한 지극한 염불 봉사를 주 활동으로 삼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도 새벽부터 염불 시다림 봉사를 다녀온 회원들은 특별한 법복을 입고 있었다. 짙은 초록색으로 염색한 광목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하얗고 깨끗한 목도리를 목에 둘러 단정한 차림이었다.

봉사 중 열악한 가정 목격
매년 1000만원 장학 후원
무연고 영가 병원비도 도와


하정선 염불공양회 회장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대상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하정선 회장은 “돈을 받지 않고 시다림 봉사를 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입고 가서 상을 당한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장엄염불로 정성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봉사뿐 아니라 무연고 시신을 위한 봉사도 맡았다. 며칠 전에는 청십자 병원에 있는 무연고 시신을 위해 병원비 500만원을 해결하기도 있다.

하정선 회장은 “나라에서 무연고 시신의 장례는 진행하지만 병원비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비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나서줬고, 덕분에 잘 해결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도 전했다.

염불공양회는 동아대학병원, 부산의료원, 영락공원, 시민장례식장, 김해 전문장례식장 등 부산 및 경남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해 다비식, 시다림, 장엄염불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범어사, 통도사, 청련암 등 사찰에서 진행하는 막재에서 찬불가 음성 공양과 염불 봉사도 도맡는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에서 진행하는 봉축행사와 신년하례식, 사명대사 추모식 등에서 육법공양으로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

서울 길상사 일요특강

“가족 간에도 中道 필요하다”

주제 : 건강한 가족과 자기분화

문진건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문진건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통합학문연구소서 동서양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이후 한국에서 상담심리 · 불교심리학을 강의하며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심리학의 융합을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심리상담과 불교적 대안’ 등이 있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1월 27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서 문진건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일요특강을 진행했다. 문 교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정서적으로 융합된 가족은 그만큼 불안정하기에 마음의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있는 그대로 나와 상대를 바라본 뒤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건강한 가족을 이룬다”고 강의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한 가족’ 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어구가 반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연결돼 있는 현대인의 생활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멀리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와 떨어져 홀로 가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전한 뜻과는 어긋납니다.

과한 의존으로 번진 불안

가족관계를 연구하고 가족문제를 치료하는 가족상담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내 일어나는 정서적 괴로움의 원인을 잘 알아차린 뒤 합리적으로 다룬다면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설 줄 아는 능력인 ‘자기분화’를 강조합니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처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에 관해 일생을 탐구했던 머레이 보웬(1913~1990)은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웬은 홀로서기를 ‘자기분화’라고 이름 지었는데, 자신 밖에서 생기는 정서적 압력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번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족 사이에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려면 자기분화, 즉 마음의 홀로서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가득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물으면, 사람들은 흔히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고 상대에게 곁을 내줌으로써 의지하게 하는 것을요.

그런데 보웬은 이런 가족을 정서적으로 융합이 된, 밀착된 가족으로 보고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간주합니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 융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부모 또는 자녀)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해 의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자녀에게까지 순식간에 퍼져 가족 전체의 불안이 커지는 경우, 혹은 어머니의 슬픔이 아버지와 자녀에게 전달돼 온 가족이 침울해지고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 융합이 강한 가족은 그만큼 불안정합니다.

정서적 밀착 지나치면
구성원 간 단절 야기해
상대방 감정과 거리 둬
‘마음 홀로서기’ 해보자

보웬은 삶에서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밀착하려는 욕구와 홀로서려는 욕구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보웬에 의하면, 본능적인 두 가지 욕구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홀로서기(자기분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너무 끌리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중도를 행하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밀착된 가족에서는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강요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배우자의 괴로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상태를 배우자에게 투사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본인도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부부는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부부 사이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아내)에게서 거리감을 느낀 배우자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에게 강도 높은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각자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자신의 불안을 딸에게 투사해 딸의 교육에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어머니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극중 어머니는 남편과 소원한 관계와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불안을 그대로 딸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상당히 불안하고 나약하니 끝까지 잘 보살펴줘야 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이 딸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모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끈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이 분화되지 못해 과잉관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이 어머니와 단절되고 싶은 욕구를 키우는 위험을 부르게 됩니다.

반면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압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불안한 마음이 누구 것인지 구별할 줄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해당 감정으로부터 떨어져 홀로서기(자기분화)를 한 다음, 가족 내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번뇌와 나 사이 거리두기

우리는 번뇌와 본래의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흔히들 감정에 휩싸이면 그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혼동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가 제시하는 가르침과 보웬의 이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구분할 줄 알고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걱정거리가 있다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지금하고 있는 생각을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절에 왔다’ ‘강의를 듣고 있다’ 고 생각은 일어나지만 자신의 감정이 편한지, 불편한지, 기쁜지, 즐거운 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마음 상태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 상태는 알아차리지 않은 채 그때 기분에 따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괜찮다고 말할 뿐입니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예요.

다시 말해 내 가족이 기뻐서 스스로가 기쁜 게 아니고, 자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떤지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닌, 내 마음에서 홀로서기를 하라는 것이죠. 불교는 더 나아가 정서적 번뇌의 원인에서 마음을 떼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말입니다.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끊임없는 연습 즉, 수행을 통해 길러집니다.

마음의 홀로서기를 위해 두 번째로 할 일은 주변의 영향을 주는 것들을 차단해보는 일입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걱정부터입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잠시 차단해보세요. 물리적으로 가족들에게 떨어져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인도 대승불교의 뛰어난 수행자이자 학자였던 산티데바 스님은 사랑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입보리행론〉에서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투사를 통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투사하게 되면 진정으로 상대방의 모습이 어떤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척 보면 아는 법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척 보니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투사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말은 삶에 대한 냉정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감정과 사고를 분리함으로써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죠.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걱정이 많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속 걱정이 많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홀로서기와 사랑하기를 양 바퀴로 삼아 가족이라는 수레를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이끌어 갑시다.

옥천범음대학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19년 신(편)입생 모집

2019. 02. 11 —— 02. 27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19년 2월 11일 (월) ~ 2월 27일 (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❶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김태호 스님	수	30명
❷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❸학년 [각배]	각배과정	이기봉 스님	목	
❹학년 [영산]	영산과정	조현성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학문의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www.okchunbud.kr Tel (02)392-3234, Fax (02)392-3239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수난보다 더 서글픈 망각의 장소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③ 수사도성 제일 가람이었던 원각사

한양 천도와 흥복사(興福寺)

서울 성동구에 왕십리(往十里)라는 지명이 있다. 한자를 풀어보면 십리를 더 가라는 뜻이다. 도성을 세울만한 곳을 찾으라는 태조의 명을 받은 무학대사가 전국을 살펴보았다. 이곳에 이르러 도성을 세울 만한 곳을 찾았다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그곳에서 땅을 갈고 있던 노인이 게으름 피는 소에게 무학같이 어리석다고 책망하였다. 의아해하는 무학에게 십리를 더 가면 궁을 세울만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헤맨다고 일러주면서 사라졌다. 무학이 그 말을 듣고 십리를 가니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대략 경복궁까지 십리가 되는 이곳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은 고려시대 남경으로 칭하면서 중요시 하였다. 고려 숙종은 이곳으로 천도할 생각으로 궁을 지었으나 옮기지는 않았다.

고려시대 남경인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불교가 국교인 까닭에 사찰도 많았다. 이곳에 있던 사찰이 흥복사였다. 한양으로 천도한 태조는 7년 5월 오래 동안 가뭄이 들자 이곳에서 운우경(雲雨經)을 강설하며 기우재를 지냈다. 8월에는 첫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대상재(大祥齋)를 흥천사와 흥복사에서 지냈다. 많은 국행불사를 이곳에서 봉행되었다. 국가를 위한 국행불사 관례는 불교배척이 심했던 태종과 세종 때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흥복사는 도성 안에 있었던 탓에 국사시책에 필요한 장소로 이용되는 일도 많았다. 세종 4년 봄에 삼남에 가뭄이 들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대중들은 일거리를 찾아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도착해서 죽는 자들이 속출하자 세종은 8월 이곳에 진제소(賑濟所)를 두어 굶주리는 자를 모아 구휼하였다. 지금으로 보면 무료 급식소이다. 그 덕분에 생명을 보전하여 살아난 자가 많았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이다.

조선조 배불정책은 흥복사의 사격을 점점 축소시켰다. 세종은 7년 호조에서 장차 집터가 나날이 줄어들고 집이 나날이 허물어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이곳을 중부(中部)라는 명칭을 붙이고 관리자를 두자고 하였다. 세종이 그 안을 받아들여 행한 덕분에 얼마간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도성 안에서도 요충지였던 까닭에 각 관청이 탐을 내었다. 세조 3년(1457) 경에는 이곳에 관습도감청(慣習都監廳)이 들어섰다. 10년(1464)에는 악학도감(樂學都監)이 들어서면서 사찰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었다. 11년(1429) 1월에는 중국 사신들이 오면 묵는 태평관을 고쳐지으려 할 때 이곳이 거론되는 등 수난은 계속되었다.

원각사 창건과 사격

흥복사는 많은 수난을 겪으며 대중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당우가 사라지고 토지마저 유지하기 힘든 때 원각사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효령대군 이보 덕분이다. 세조 10년 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 법회를 베풀 때 여래가 출현하고 감로가 내렸다. 승려 3인이 탑을 돌며 정근할 때 그 빛이 번개와 같고 대낮과 같이 환하였다. 무지개가 공중에 가득 찼다. 사리가 수백 개로 분신하는 이적도 일어났다. 그 사리를 함원전(含元殿)에 공양하니 또 분신하여 수십과가 되었다.

이적을 체험한 세조가 10년 5월 2일 승정원에 명하여 이곳에 원각사를 세우고자 하였다. 조성도감을 두고 종친과 주요 대신들과 창건을 의논하였다. 세조는 때때로 이곳에 가 공사의 진행을 살필 정도로 관심을 기우렸다.

그런데 흥복사가 터가 좁아진 탓으로 인근 민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세조는 승지를 영의정 신숙주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다. 도성 안에 있는 곳을 감안해서 가격을 세 곱을 쳐서 지불하라는 의견을 따라 근방 인가 2백여 채를 매입하였다. 이렇게 든 액수가 정포(正布)가 4천 4필(匹), 쌀이 수백 석(石)이고 보리가 1백여 석이었다.

조선시대 국사 시책의 장소
배불정책에 점차 쇠락해
불자들조차 '원각사' 의미 망각

세조는 원각사를 크게 세우면서 사격을 갖추기 위한 불사를 행하였다. 먼저 11년(1465) 1월 16일 5만근이 되는 범종이 먼저 조성되었다. 한양에 있는 동이 부족해 개성부, 경기, 충청, 경상, 그리고 전라에서 동을 보내와 조성할 수 있었다. 그해 4월 7일 원각사가 낙성되었다. 법당의 기와는 청자로 조성하였는데 8만장이 들었다. 12년 7월 15일에는 백옥의 불상이 조성되자 함원전에 모셔와 점안식을 하였다. 원각사에 내려진 전지가 3백결이었다.

마지막 남은 불사가 탑이었다. 불탑조성은 13년(1467) 3월 6일 이전에 완성되었다. 일본의 승려 도은(道誾) 등이 세조를 뵙고 "원각사의 탑이 천하에서 제일이라 하니 원컨대 오늘 구경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에 세조는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예조에 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 탑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각사 10층탑은 높이가 12m에 이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조성한 까닭에 탑신에 표현된 변상도가 정밀하다. 기단과 탑의 3층까지는 '아(亞)' 자 모양이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각 층마다 지붕과 공포를 표현하여 목탑 형식을 띠고 있는 조선 석탑의 백미이다. 그래서 조성과 함께 중국과 일본에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조선에 오는 승려들은 이 탑을 보고 싶어 하였다.



보호각 속의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근현대사의 수난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 큰 문제는 수난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탑이지만 10층 탑의 가치는 1층에서 3층까지 동서남북과 4층 남쪽에 조각된 13회의 변상도에 있다. 남쪽 1층부터 삼세불회, 2층 화엄회, 3층 소재회, 그리고 4층 원통회이다. 동쪽을 보면 1층 미타회, 2층 다보회, 3층 약사회이다. 북쪽은 1층 용화회, 2층 법화회, 3층 능엄회이며, 서쪽은 1층 영산회, 2층 원각회, 3층 전단서상회이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부처님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13회 변상도 가운데 좀 특별한 것은 먼저 3층 소재회 변상도와, 4층 원통회, 북쪽 3층 능엄회, 그리고 서쪽 3층 전단서상회를 들 수 있다.

남쪽 3층 소재회는 모든 어려움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먼저 죄를 멸하고 삼재팔난과 일곱 가지 어려움을 없애 궁극에는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밀교적 의식인 네 가지 호마의 하나로 신라 말에 들어와 고려시대 크게 유행한 의례이다. 이런 소재회에 의해 10층탑은 현교와 밀교를 아우르는 탑임을 알 수 있다.

남쪽 4층 원통회는 관세음신앙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원통교주라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탑의 13변상도 가운데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원통회가 들어간 것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관음신앙의 중요성 때문이다.

북쪽 3층 능엄회는 〈수능엄경〉을 설하는 법회이다. 일체의 선정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는 선종에서는 대중의 안거를 기원하기 위해 아침에 능엄회를 행하였다. 그런 까닭에 〈수능엄경〉은 진위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종에서 중요시 했던 경전이다.

서쪽 3층 전단서상회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할 때 지상에선 부처님의 행방을 몰라 제자와 신도들이 우왕좌왕하였다. 그러자 우다야나왕이 전단향 나무로, 파사닉왕이 자마황금으로 여래상을 조성하면서 진정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세조 13년 4월 8일을 기해 원각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베풀고 탑의 조성을 대대적으로 축하하였다.

원각사의 계속된 수난

이렇게 세워진 원각사였지만 오래지 않아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윤씨는 죽으면서 성종에게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나 내가 죽은 뒤에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게 버려두지는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성종 14년(1483) 8월 사람의 출입을 전혀 금지하지 않아 불좌(佛坐)의 채단(彩段)이 도둑맞고 찢겼다.

연산군 11년(1505) 2월에는 이곳에 장락원(掌樂院)을 두어 기생 천여 명과 악사 천여 명을 두었다. 중종 1년(1506)에는 도성 안의 절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명에 의해 중창되기도 어려웠다. 국가가 방치하자 인근 백성들이 원각사의 기와를 가져다 쓰고, 관청에서 목재를 가져다 썼다.

대종도 수난을 당했다. 중종 28년(1533) 성 밖에 사는 관리들은 집이 도성에서 멀어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관아로 출근할 때 지각을 하자 정릉의 종을 남대문에 옮기고, 원각사의 종을 동대문에 옮겨 새벽과 저녁에 쳐서 들리도록 했다. 그 후 두 종은 중종 36년(1541) 6월 1일 남대문의 종은 군자감, 동대문의 종도 둘 만한 곳이 없어 훈련원에다 옮겨 놓았다. 그렇게 방치되다가 명종 18년(1563) 11월 두 종을 내수사로 보냈다.

사격은 급속도록 쇠락해졌다. 이렇게 쇠락한 원각사는 근대에 이르면 10층탑 옆까지 민가가 들어선 모습이다. 사찰의 모습으로 볼 때 탑의 북쪽 어딘가가 대웅전이었을 것인데 흔적조차 알 수 없다. 그런 모습에서 공원으로 변모하여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 것은 영국의 J. M. 브라운이다. 탑이 있어 탑골이라 불렸던 이곳이 서울 최초의 근대식 파고다 공원이 된 것이다.

근대에도 수난은 이어졌다. 1902년 군악대가 서쪽 부지에 세워졌으나 1907년 7월 통감부의 명령으로 이 군악대가 해산되면서 건물은 방치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공원의 관리권도 총독부로 넘어갔다. 총독부는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하였다. 1919년 9월부터 경성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원각사의 수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2년 5월 탑골공원으로 개칭된 원각사 터에 가면 10층 석탑이 유리창에 갇혀 있다. 비바람과 새의 분뇨에 취약한 대리석 탑신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고육지책이다.

이런 형식적인 수난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을 오고 가는 불자들도 탑이 국보 2호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망각의 정신적 수난이 더 큰 재난일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32-3722, 031)533-3722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삶의 가치 탐구서 활력 나온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③ 내 밥벌이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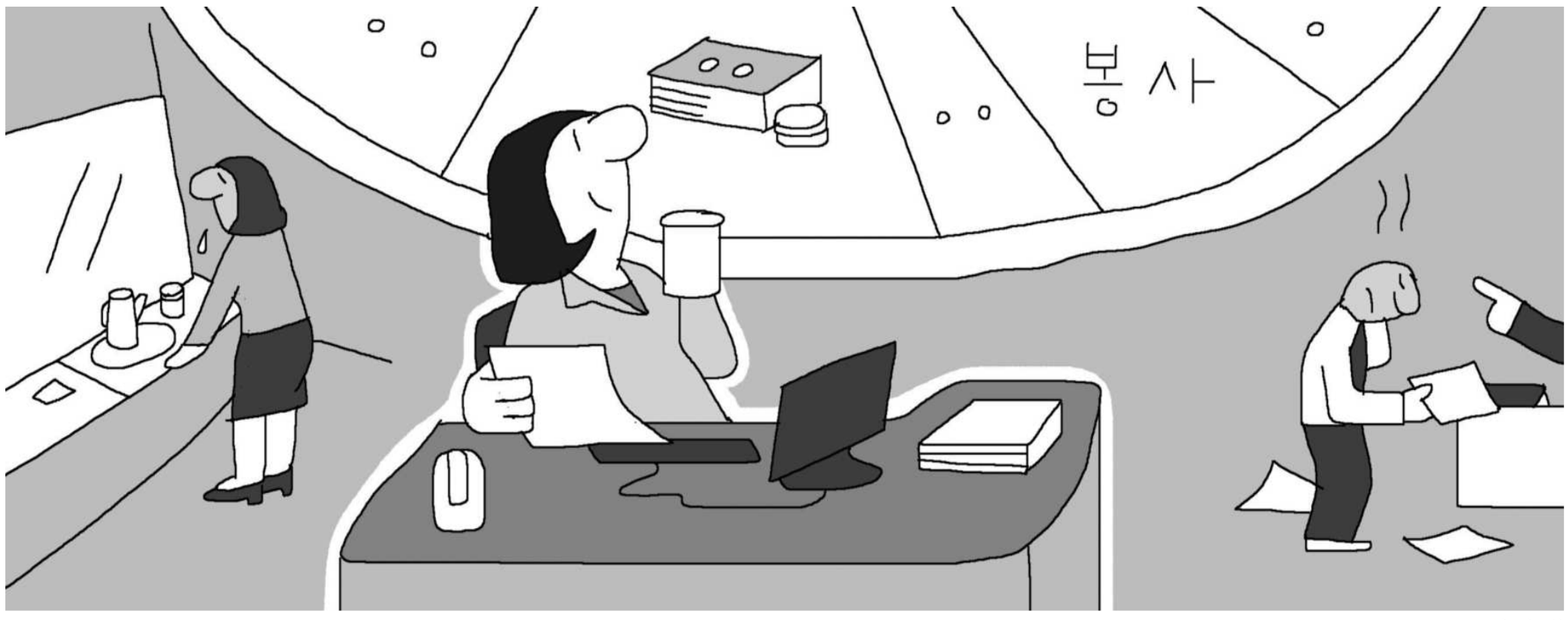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또 다시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니즘'이 최우선의 화두다. 돈이 안 돌면 집안의 어른은 말발이 안 먹히고 나라의 대통령은 지지도가 떨어진다.

요즘 결혼정보회사 배우자 일등급의 첫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다. 직업의 의미나 가치보다 소득을 더 따지더니 이제는 고단한 밥벌이를 안 해도 되는 부자가 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속으로야 어떻든 재물을 탐내면 배금주의라며 은근히 경멸하던 우리가 내놓고 돈을 숭배하고, '돈 많이 버세요'가 최고 덕담이 된 결정적인 시점은 아마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가 아닐까.

글로벌 시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편입되면서 평생직장이 사라진 그 시절 이후 보통 사람의 가치관은 확 뒤집어졌다.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무능하고 쓸모없는 퇴출 대상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직장인 회의감 느낀 은영씨
삶의 풍족 대신 가치의 빈곤 느껴
일에 대한 가치 찾게 조언

가치 매트릭스의 주요 키워드 30개

권력, 도전, 탁월성, 리더십, 명성, 모험, 신념, 성공, 전문성, 인정, 균형, 조화, 끈기, 도덕, 신뢰, 정의, 성실, 자비, 책임, 배려, 성실, 아름다움, 독창성, 명랑, 우정, 열정, 부유함, 안정, 용기, 지혜

오늘도 밥벌이를 하러 가는 그대

은영은 다이어리 코칭 고객이다. 대기업 계열사인 유통업체 대리로, 주말에도 특근이 잦은 그녀에게는 첫 면담 이후 다이어리를 쓰게 하고 이메일로 코칭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은영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꿈꾸던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으나 엄청난 경쟁에 차차 눈높이가 낮아졌다. 기업 공채로 방향을 바꾼 그녀는 졸업을 미루면서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입사 후 한동안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에 시달렸지만, 생활비와 부모님 용돈을 제하고도 저축을 할 수 있고 복지카드와 의료비가 지급되는 대기업 사원의 신분이 안전한 열차를 탄 것처럼 쾌적하고 자부심이 느껴졌다.

차차 일을 더 잘하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대리로 승진하면서 더 큰 원룸으로 옮겼고, 연월차 휴가를 모아 1년에 한번은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5년차로 접어들면서 그녀는 출근 시간마다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팀장이 지시한 일을 오늘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다.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는 자신이 밥벌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렇다고 직장을 놓을 수도 없다. 이만큼이라도 누리며 남들 보기에 구차하게 살지 않는 게 어디인가.

"출근길에서부터 클라이언트와 팀원들과 수많은 교신을 하고, 책상에 앉으면 모니터에 숫자를 채워 넣으면서 그날의 목표치와 실적을 확인한다. 업무용 단체 대화방이 여덟 개나 된다.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을 위해 다른 방으로 가서 질문을 하고 숫자를 옮겨 쓰고 사이사이 팀장의 채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팅자료를 조사한다. 종일 사무실 안을 뱅뱅거리다 점심을 후딱 먹어치우고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하루가 저문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팀원들과 저녁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처리한다. 운이 좋아야 저녁 8시경에 사무실을 벗어나다."

"회사는 강남에 있고 집은 강동의 서울 끄트머리에 있어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퇴근하면 파김치가 된다. 뉴스를 검색하고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잠이 들고 뒷날 허겁지겁 일어나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보충하고 쉬어야 한다. 여가 활동이라야 기껏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정도다. 쉬는 틈틈이 수 십 개의 질문이 올라오는 대화방에 답을 해야 하고 여차하면 매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 일요일 오후부터 슬슬 월요병이 도진다. 결코 즐겁다고 할 수 없는 업무의 반복과 판매 실적을 채워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 판에 박힌 인사말과 농담을 나누고 팀장에게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들. 이런 일상을 보내려고 십 수 년을 수험서에 파묻혀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세월을 보냈나? 자괴감이 든다."

밥벌이는 경제력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비교적 조건이 나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 외에 흥미도 의미도 없다. 전직을 하자고 해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 데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의 코칭이 가장 까다롭다.

코칭은 변화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하지만, 우울증으로 옮겨가기 쉬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적성에 맞는 업종을 희망했으나 취업전선에서 거듭 실패하다가 겨우 취업에 성공하니 애초의 희망사항은 배부른 투정이 되어버렸다.

꿈을 꾸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성적에 맞춰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대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관문이 취업이다. 경제력이 뭣보다 우선인 사회에서, 경제 독립으로 기본의 자존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직업에서 밥벌이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코칭하기는 쉽지 않다.

은영은 인생의 가치라는 단어를 새삼스러워 했다. 적성과 흥미는 탐구해봤으나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녀는 경제력 이상의 의미를 직업에서 찾지 못하고 있었다.

10여회의 이메일이 오간 끝에 은영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주었다. 코칭 목표를 피코치가 찾지 못할 경우 코치는 개입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간다. 힘들게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자기 존중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는 게 지금의 은영에게는 중요하다. 돈을 쓰는 재미를 알아야 돈을 버는 재미가 생기고 버는 과정의 고단함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다.

은영에게 준 미션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과, 돈을 그 가치에 맞게 소비하는 방법이었다.

가치 매트릭스 결과 은영의 최우선 가치 3개는 조화, 자비, 책임이었다. 두 번째 미션을 위해 우리는 은영의 가치에 맞는, 돈 쓰기 코칭을 이어나갔다. 자연스럽게 은영의 코칭 목표는 〈인생의 가치에 맞게 돈 쓰는 의미를 느끼기〉가 되었다.

은영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거쳐 자비에 집중했다. 좋은 차를 사고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해 일하는 이상의 큰 가치를 찾고 싶다고 했다.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할 때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은 심리학자들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왔다. 최우선 가치에 자비를 선택하는 은영이 단지 안락한 생활을 위한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붓다가 불교정신의 핵심인 자비를 위해 실천하고 가르친 첫 번째 바라밀은 보시였다. 자신만을 위해서는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 타인을 보라는 뜻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깊이 느끼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휘둘리고 만다. 자기를 넘어서는 타자를 향한 사랑이 자비의 시작이라면, 소유를 내려놓고 타인에게 나누는 보시는 자비의 실천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은영은 자비와 보시의 가치를 이해한 후 실천할 계획을 세웠고, 그 용도로 적금을 새롭게 들었다. 그녀는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직장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주인의식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강경〉에는 '붓다는 배가 고프면 나가서 걸식을 하고 걸식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갔다(還至本處)'는 글귀가 있다.

"걸식이 끝나면 거처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얼핏 평범하지만 사실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법문이다. 일은 최소한의 먹고 입을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생활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페이융 〈금강경의 지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물론 붓다의 걸식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대중에서 보시를 경험하게 하는 수행의 하나지만, 일에서 밥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현대인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커다란 조직에서 작은 존재로 쳇바퀴처럼 일한다고 해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어나간다면 자신의 본래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그 자유와 존엄의 느낌으로 우리는 버틸 힘을 갖는다.

깨어 있는 대부분을 시간을 차지하는 일이, 단순한 밥벌이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일상으로 다가온다.

은영은 다이어리를 계속 쓰고 있으며, 후속 코칭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 부디스트 코칭에 나오는 인물은 사례의 공개에 동의하신 분들이며, 이름은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모집안내 문 의 :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강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장 소 :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 각 합 장

부처 성질 가졌기에 '佛' 될 수 있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③ 부처는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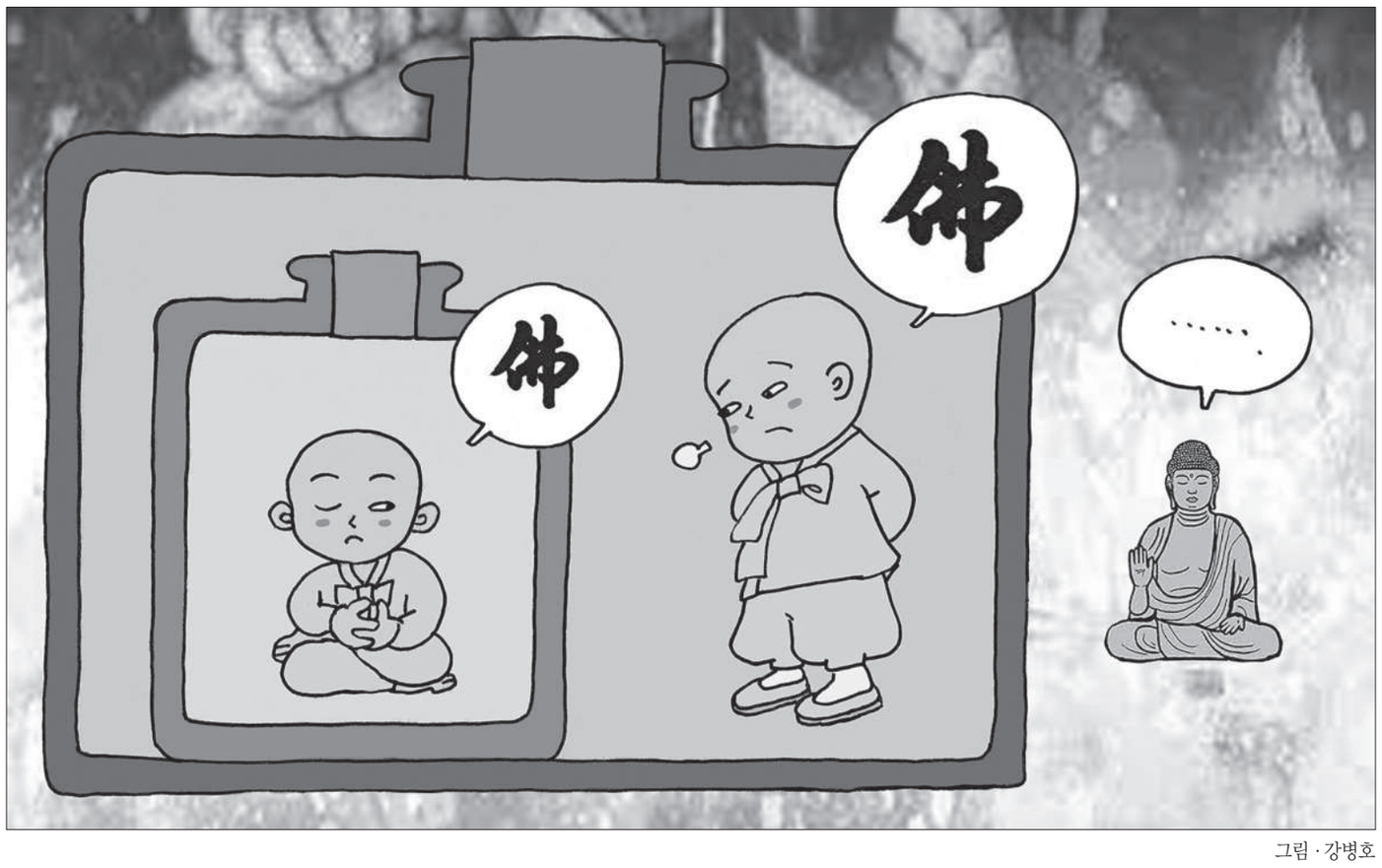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옛날에 뛰어난 한 선사가 참선을 하고 있는데 불교를 잘 안다는 대학자가 찾아왔다. 스님하고 불교에 대해서 한 번 논쟁해 보겠다고 찾아왔다고 하니 스님은 먼 길을 온 학자에게 차를 대접한다. 차를 따르는데 찻잔에 차가 넘쳐도 계속 따르고 있다. 그것을 보고 대학자가 "스님, 차가 넘칩니다"라고 말하자,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자네가 이것과 똑같네.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나하고 불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부처되는 것인데 과연 부처될 수 있을까? 불자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을 문제다.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집합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집에서 손자 손녀들이 숫자를 익히고 공부를 한다. 1,2,3,4를 가르쳐 주니까 며칠 만에 100까지 알았다. 한 달 후에는 1000까지 알게 되었다. 100까지 아는 것은 1000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1000을 안다고 할 때 당연하게 100을 안다는 것이다. 100이 따로 있고 1000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1000까지를 안다고 할 때는 100까지 알고 또 1000까지 아는 것이다. 이 부분의 개념은 앞으로 전개되는 불성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선불교 경전에 보면 '내가 곧 부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의 예시를 이해할 때 선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까지 아는 것은 1000까지 아는 부분에 속하는 부분집합이다. 이와 같이 중생은 부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뿐이다.

돌은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다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이야기다. 젊은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회양선사에게까지 들려온다. 그래서 회양선사는 마조도일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처를 찾아간다. 마조도일은 산 중턱에 있는 암자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남악회양선사가 하루 종일 혼자서 참선을 하고 있는 젊은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침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젊은 스님이 바깥으로 나왔다. 소변보러 나오는 젊은 수행자를 남악회양 선사가 한참 쳐다보다가 "젊은 수행자여, 자네는 무엇이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앉아 있는가"라고 묻자 "부처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조도일이 대답한다.

그러자 회양선사가 주위에 있는 벽돌을 하나 집어 들고 법당 앞에 있는 큰 돌에 슬슬 갈기 시작한다. 화장실 다녀오겠다던 젊은 수행자가 한참 쳐다보다가 "스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하고 묻자 "거울을 만들려고 돌을 갈고 있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웃으면서 "돌은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마디 거들었다. 이에 남악회향은 젊은 수행자에게 한 마디 한다. "그럼 자네는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는가"

남악회향의 말 한 마디는 마조도일을 견성하게 만든 계기가 된다. 돌은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돌과 거울의 관계에서 돌이 결국 거울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울이 될 수 있지만, 돌이 거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죽다 깨어나도 거울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돌이 거울에 포함되어야만 거울이 된다는 것이다.

無明의 상태가 바로 중생

중생이란 무엇인가? 무명의 상태, 모르는 상태가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는 별개가 아니란 것을 이 부분에서 이해해야 된다. 회향선사와 마조도일의 대화와 어린손자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잘 이해하면 된다. 결국 중생이란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상태이고 연기를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가 부처이다. 이것이 불교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불성의 존재에서 중생은 부처의 '부분집합' 인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비교해보면, 모르는 것은 항상 아는 것에 포함되게 된다. 중생이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부처는 〈대승기신론〉에서 우주를 덮고 있는 일심이며, 〈중론〉에서 이야기 하는 공이며 무자성인 것이다.

중생, 부처의 '부분집합' 존재
씨앗 · 속성 지닌 가능성 지녀

부처되겠다면 스스로 개혁하라
무명→연기 이동 작업이 '수행'
수행하는 것만큼 부처가 된다

중생이 곧 부처다 했을 때 어떻게 중생이 곧 부처인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중생은 부처의 속성과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고 깨쳐서 알 것 같으면 부처가 된다. 불성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국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어야 삶의 목적을 부처에 둘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뿌리는 불안

지금 달나라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지구에 온다면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멋대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무엇이 주차위반인지 모른다. 모르면 불안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위반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세속의 법도 이러한데 부처님의 법인 무아와 무상을 알고 내가 실천할 줄 모른다면 안 된다. 주차위반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위반하지만 아는 사람은 위반하더라도 다음에는 위반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본인이 위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식, 감정 등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안이다.

몸뚱이가 왜 생긴 것인지 왜 인간 몸을 받은 것인지 왜 죽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풀어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생기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이 몸뚱이를 만들어 낸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할 때 TV 보고 친구를 만나는 등 무한정 살 것처럼 보낼 수 있을까. 오늘 한 시간 노력하는 것은 나이 들어 10년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 이자가 붙듯이 공부도 똑같다.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이자가 안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금과 같이 이자가 붙는 것이다. 부처님 법도 적금 이상의 복리 이자가 붙는다. 그런데도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등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질서를 지킨다. 결국 연기를 깨닫고 나면 이보다 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자비와 광명이 나한테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복과 덕이 된다.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중생들에게 매우 큰 복과 덕이 되는 것이다. 스님들이 선문답할 때 본래 청정이란 말을 자주 한다. 불교의 근본적인 속성은 청정이며 자비광명일 뿐이다. 밝음은 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궁극적으로 내가 다 알고 나면 편안해진다.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고 온갖 문제의 해결을 알게 되면 편안해진다. 편안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적정이고 적멸이다. 그래서 무아와 무상을 깨치면 열반적정이 되는 것이다. 자비광명과 열반적정은 반드시 청정해야 한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광명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적정은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하지마라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내가 부처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부처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 무명에서 연기로의 이동

10억 원의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하자. 복권 당첨자가 볼 때는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세세생생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농사꾼으로서 몇 생을 사는 동안에 일을 해주고 품삯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생에 했던 자신의 노력의 대가들이 우연하게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 이번 생에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된 것 같지만 절대 우연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이다. 전생의 인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생에서 그냥 일어날 뿐이다.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 기도는 성취되게 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죽어가는 암환자가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100% 믿음이 생기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기복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복이 아니라 연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인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금강경〉에는 '지극한 마음을 일으킨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견성성불' 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교의 목적은 '견성' 이며 '부처' 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되려고 애를 써야 미래의 삶이 보장된다. 인과는 정확하다. 절대로 엉뚱한 인과는 없다.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의 덩어리를 이생에 표현하고 가는 것일 뿐이다.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무명에 가깝던 내 삶을 연기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동시키는 작업이 바로 '수행' 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이번 생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만큼 부처가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종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佛緣'은 '맹구우목'과 같은 것



新 불교사자성어

⑤ 맹구우목(盲龜遇木)

'눈이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통나무를 만나다' 라는 뜻이다. 한역 〈잡아함경〉 15권에 있는 우화로서 '맹구우목공(盲龜遇木孔,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다)' '맹구치부목(盲龜值浮木,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 있는 나무를 만나다)' 이라고도 한다.

해저(海底)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거북이는 100년 만에 한 번씩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 구멍이 뚫린 통나무를 만나야만 그 속에 머리를 밀어 넣고서 망망대해를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통나무를 만나지 못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이 비유는 인간으로서 태어나기가 어렵고(人身難得), 또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부처님 법(法, 가르침)을 만나기가 마치 '눈이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통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 는 뜻이다. 물론 이 비유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정진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인생난득(人身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이라고 하는데, 〈열반경〉 〈화엄경〉 등 많은 경전에 나오며 신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도 나오고 있어서 비교적 우리에겐 익숙한 사자성어이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북이가 구멍 뚫린 통나무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눈이 멀쩡한 거북이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거북이(盲龜)의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0%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불교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상징적인 말이다.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八正道, 八聖道)' 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여덟 가지 바른 길로서, 정견(正見),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사유(正思惟), 정정진(正精進)을 말한다.

나는 그 가운데 네 가지 곧 정견, 정어, 정업, 정업을 100%가 아닌 50%만 실천해도 그는 사회적 롤모델, 타인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풀이하면 올바른 사고와 견해를 지니는 것(正見), 가짜뉴스, 거짓말, 아부, 폭언, 비방, 불량 댓글 등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正語), 사기행각이나 도적질, 폭력, 살인 등을 하지 않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正業), 의식주 등 생활에서 낭비, 사치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용, 소유하며,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正命). 이렇게 네 가지만 실천해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명망은 있으나 인격 미달자가 적지 않다.

팔정도는 언행이나 행동규범의 전범(典範)이다. 따라서 종교적 색채를 떠나서 그 누구라도 실천 철학으로 삼아야 할 규범이라고 본다. 특히 불교도들에게는 더욱 '인생의 지침' 이 되는 생활철학이다.

불교 경전에는 많은 비유와 우화, 예화가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백유경〉, 〈현우경〉, 〈법화경〉 비유품 등인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또는 외도들과 논쟁할 때에 직설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거나 논쟁하기보다는 비유나 우화, 예화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설적인 논법보다는 간접적, 비유적인 논법이 타인을 이해, 설득시키고 가르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두 번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만일 조물주가 인생을 한 번만 더 살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무엇 때문에 젊은 날 공부하지 않고 세월을 파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학과 통기타를 배우지 않은 것이다. 어울리지 않겠지만 통기타를 가지고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베사메무초' 를 분위기 있게 연주해보고 싶다.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길은 길고,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의 말 두 개의 말뚝이 되고

〈言〉



격절록 강설

⑤ 덕산시중화 평창 3

[評唱 3]

只如 法眼拈道 "大小德山 話 作兩橛" 可謂據款結案. 圓明拈道 "大小德山 龍頭蛇尾" 也是看孔著楔. 如今作麼生會這公案. 若做兩橛會 且得沒交涉 便作龍頭蛇尾會 且得沒交涉. 既不恁麼會 畢竟作麼生. 且道 二老宿 為什麼却如此拈. 諸人試著眼看.

그건 그렇고, 법안(法眼)이 염(拈)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덕산의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고 했으니, 가위 법령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할 만하다. 또한 원명(圓明)이 염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덕산이 용두사미가 되었구나!"라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구멍을 보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공안을 알고 있는가? 만약 두 개의 말뚝으로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고, 용두사미로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알지 않는다면, 필경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말해보라! 두 노숙(老宿)이 어째서 이와 같이 염을 했는가? 모두들 시험삼아 착안(著眼)해보라!

古人道 "獅子咬人 狂狗逐塊" 如今作麼生見得德山去. 所以 拈古十箇 拈做十般 要須出他古人意 方喚作拈古. 只如 傅大士道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要知佛去處 只這語聲是" 看他玄沙拈道 "大小傅大士 只認箇昭昭靈靈" 又靈雲見桃花便悟云 "自從一見桃花後 直至如今更不疑" 玄沙云 "諦當甚諦當 敢保老兄未徹在" 且道 他意在什麼處.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 미친 개는 흙덩어리를 좇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덕산을 보았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 염고(拈古) 열 개를 열 가지로 염하더라도, 모름지기 저 고인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니, 그래야 염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 대사(傅大士)가 말하기를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자며,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이 말소리가 그것이다"고 했는데, 저 현사(玄沙)가 염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부 대사가 다만 소소영령(昭昭靈靈)한 것을 알았을 뿐이다"고 한 것을 보라! 또 영운(靈雲)이 복숭아꽃을 보고서 바로 깨닫고는 말하기를 "복숭아꽃을 한 번 본 이래로 지금까지 다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사(玄沙)가 말하기를 "확실하고 아주 확실하다. (하지만) 감히 보증컨대, 노형이 아직 철저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 말해보라!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 미친 개는 흙덩어리를 좇는다(獅子咬人 狂狗逐塊)는 말은 전등록 제 6권, '월주(越州) 대주(大珠) 혜해(慧海) 선사' 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물었다. "무릇 경 · 율 ·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읽고 외우며 가르침에 의지해 받들어 행하는 것인데, 어째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마치 미친 개는 흙덩이를 좇지만, 사자는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 경 · 율 · 논은 자성의 용이고, 읽고 외우는 것은 성품의 법이다."

*부 대사(傅大士, 497~569)는 무주선혜(婺州善慧), 쌍림(雙林) 대사, 동양(東陽) 거사라고도 한다.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 설봉의존의 법을 이었다.

*영운지근(생몰 미상): 위산영우의 법사. 경덕전등록 11권, '복주 영운 지근 선사' 편에 오도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0년을 검객을 찾았으니 낙엽지고 새싹이 돋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복숭아꽃을 한 번 본 이래로 지금까지 다시 의심하지 않았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⑤ 믿음 편 5

깨달음, 이성 아닌 믿음 · 수행으로

불교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점에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불교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증명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중세 기독교의 오류를 답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부처님(佛)과 가르침(法), 승가(僧)이다. 이를 가리켜 삼보(三寶), 즉 세 가지 보배라 한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다. 삼보는 불교를 지탱하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三歸依)에서 시작된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귀의란 범어인 '나마스(namas)' 를 번역한 말이다. 흔히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南無)' 는 나마스를 음역한 말이다. 이는 목숨 걸고 돌아간다(歸命)는 뜻이다. 삼귀의란 삼보에 돌아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이처럼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별상삼보(別相三寶)라 한다.

반면에 삼보를 '하나인 마음' 으로 바라보는 일심삼보(一心三寶)도 있다. 불법승(佛法僧)이 마음 밖에 별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일심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귀의는 하나인 마음에 돌아가 살겠다는 간절하면서도 굳건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은 화엄불교나 선불교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된다. 〈화엄경〉에는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하였다. 우리는 탐진치(貪瞋痴) 삼독에 취해 있어서 중생인 줄 알고 살지만, 실은 믿음의 대상인 부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독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처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곧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선불교에서도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 임을 매우 중시한다. 이를 언급하지 않은 선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름 아닌 부처임을 믿고 깨치는 것이 곧 견성(見性)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품을 밝게 비추는 견성은 선불교의 생명이다.

화엄이나 선에서 자신이 곧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를 대상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를 대상화하면 나와 부처가 둘이 되어, 나는 '여기' 에 있고 부처는 '거기' 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밖에 있는 '거기' 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선불교에서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이키라(返照)고 한다. 그럴 때 부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친다는 것이다. 선사들이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切莫外求).' 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가 지나치게 기복(祈福)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성찰의 종교라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전국의 사찰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영험 때문이다.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에 기복이 없을 수 없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위신력(威神力)에 의지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담을 수 있다. 연등이나 염주 등에 '소원성취(所願成就)' 란 말이 많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불교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기복신앙' '귀신장사' '아줌마 불교' , 한국불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용어들이다. 이를 극복하고 자기 성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는 어리석은 믿음(迷信)이 아니라 바른 믿음(正信)을 지향하는 종교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급여(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 교수

2월 1일 임명… "부처님 가피에 감사"



윤범모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사진>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됐다.

윤범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 2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까지 3년이다.

윤범모 교수는 1979년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계간미술(월간미술 전신)〉 기자로 활동했다.

30여 년간 다수의 근대미술사 연구저작들을 펴냈으며, 한국 근대 거장들과 북한 미술과 관련한 리얼리즘 관련 전시들을 주로 기획해왔다.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을 일으킨 소집단 '현실과 발언' 창립멤버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미술협의회 산하 '그림마당 민' 운영 위원으로 참여했다.

1995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창립 당시 특별전 기획자와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한 가천대 교수와 경주엑스포 전시총감독,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한국큐레이터협회 초대 회장,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본지와의 인연도 깊어 2005년에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에는 실크로드에서 석굴암까지의 여정을 그린 '불도 기행'을 연재하기도 했다.

윤범모 교수는 "동국대 출신으로 국가 중요 미술관의 수장이 돼 기쁘다. 모두 부처님 가피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이 인창병원 병실을 돌며 준비한 간식을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인사를 전했다.

"환우들 빠른 쾌유 기원"

여래사불교대학, 인창병원 환우 방문

병원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해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로한 것이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원범)은 1월 24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인창병원을 방문하고 제9회 인창병원 환우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소재지인 부산 동구에서 독거노인 반찬 배달 및 병원 방문 등 봉사를 이어왔다. 이번 인창병원 방문은 봉사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불교대학 학생들은 직접 마련한 간식을 들고 병실을 방문해 전달했으며 원내에서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고 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기치로 개원했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지법인 연꽃마을 중장기 발전의 해로"

Interview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3안거 성만한 수좌 스님 출신

사찰 경영, 법인관리 역량발휘

3월 취임과 함께 장기계획 발표

"불교복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첩경입니다. 은사스님의 원력을 이어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로 원상 스님(단양 미륵대흥사 주지)이 선출됐다. 연꽃마을 법인 이사진은 1월 16일 용인 법인사무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원상 스님의 대표이사 취임을 가결했다.

이날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원상 스님은 "부족하나마 연꽃마을 임직원 여러분들과 두루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며 "월탄 큰스님을 비롯해 덕산문도의 사형사제들과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대 대표이사였던 원명 스님은 1월 17일 임기만료에 앞서 퇴임의 뜻을 밝혔다. 원상 스님은 1월 18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제4대 대표이사로서 활동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 중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상 스님은 2014년 원적한 연꽃마을 2대 대표이사이자 중흥주인 故각현 스님의 두 번째 상좌다. 1986년 법주사에서 출가한 이후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대승사, 대흥사 등에서 33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스님은 이와 함께 천안 은석사, 대구 정법사, 북한산 부황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소임 경험과 운영역량도 지니고 있다. 현재 금성선원 선원장, 전국 선원수좌회 총무분과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로 임명받아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는 등 사찰 경영에도 역량을 키워왔다.

스님은 "입적한 은사스님이 현재 연꽃마을을 일구고 이어 사형인 원명 스님이 유지를 이어왔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인과 산하기관의 발전, 그리고 은사스님이 펼치신 효의 사회화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사무처에 따르면 연꽃마을은 올해 4월 효사랑마라톤대회를 비롯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눔행사 등 절기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시설장 회의를 통해 우수직원과 우수시설 표창 등도 이뤄진다. 또 각현 스님 5주기 추모법회도 11월 30일 개최한다.

원상 스님은 "연꽃마을은 2020년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산하 시설과 종사자들의 화합, 그리고 전국에 위치한 의료복지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3월 취임식을 기점으로 중장기 계획을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며 대중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강제징용 희생유골 송환 도움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계종 예방해 협조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송환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을 한국 땅으로 송환하는 사업에 조계종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예방을 받고, 민화협이 일본 불교계와 추진 준비 중인 동북아 평화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불교계는 북한 전통 문화재와 사찰을 중심으로 보수,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연스런 민간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월 중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환국 사업을 지난해 여름부터 일본 불교계와 논의해왔다"며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바로잡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환국 사업에 조계종도 나서준다면 한국, 일본, 나아가 북한까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이전 방북 때마다 민화협 주도 하에 이뤄지는 민간교류가 많은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며 "2월 중순경 북한서 열리는 남북공동행사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대북 관련 논의를 하는 한편, 북한 사찰과 사찰 주변 산림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을 청와대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민화협의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화협 측에서 이영동 상임집행위원, 김정호 체육교류위원장, 김성권 청년미래위원장이, 조계종 측에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 기획실장 오심 스님, 사서실장 삼혜 스님 등이 배석했다. 김지원 기자

"의료봉사로 인도에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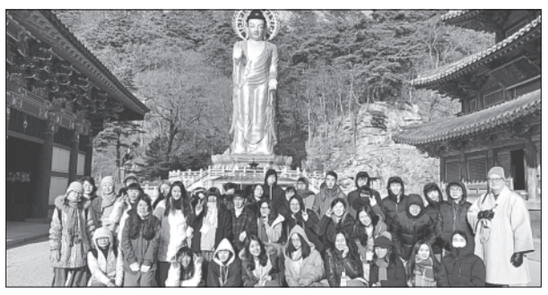
(사)세상을향기롭게, 의료봉사 · 후원활동 펼쳐



(사)세상을향기롭게(대표이사 정여)는 1월 19~28일 인도를 방문, 의료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이사 정오 스님과 세종파라미타 회원 및 봉사자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정오 스님은 "따뜻한 나눔을 세계에 펼칠 수 있어 기쁘다. 온 세상이 부처님 가르침과 자비로 맑아지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템플스테이 재밌어요!"

대만 불광대 학생 30명, 한국불교문화 즐겨



대만 불광대학교 한국문화체험단 학생 30명은 1월 24~25일 서울 및 속리산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즐겼다. 이번 체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불광대학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사업단은 2017년부터 불광대학교에 템플스테이 지원을 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대승조계종 종정에 현각 스님

부산 서림사서 법회, 500여 사부대중 운집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1월 27일 부산 사하구 서림사 대법당서 제4대 종정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불입종 종정 면철 대종사, 사하구 사암연합회장 범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효산 현각 스님은 "선각자로서 후학들을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日음악가들 "공연장소, 법당이 최고"

특유 목재구조가 음향 살리는 데 영향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음악가들 사이에 불교 사원에서 공연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월 28일 보도했다. 공연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불교 사원 특유의 목재 구조가 우수한 음향 상태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직접 나서 영적 지도를 제공하면서 공연에 흥을 더한다고 한다. 젊은 신도들이 사원에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환경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비단 일본 음악가들뿐만이 아니다"며 1994년 밥 딜런이 나라현에 위치한 토다이지사원에서 장엄한 배경 아래 공연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지난해 5월 22일 오카야마 시내에 위치한 3세기 전 건축된 사원, 린자이에서 펼쳐진 공연을 소개했다. 당시 피아니스트 하야시 마사키(Hayashi Masaki, 40)의 공연과 함께 악기용 톱 연주가 하지메 사키타(Hajime Sakita, 47)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톱 소리는 사원 구조 덕분에 더욱 구슬프고 부드러웠다는 설명이다.

린자이 사원의 15대 주지인 신유 시노하라(54) 스님은 음향 콘솔을 직접 작동시킨다. 그는 1999년 사원에서 음악공연과 다른 행사들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음향학을 배우기도 했다. 시노하라 스님은 "토성 벽은 소리를 잘 흡수한다"며 "목재 구조물은 건조해서 소리를 더 잘 퍼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나는 사원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길 바란다. 음악공연도 그러한 이유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아니스트 · 톱 연주가 등
사찰 음향환경에 매료돼
음향 공부하는 스님 늘어
"젊은이 위한 공간 탈바꿈"

해당 절에서 공연을 열었던 한 연주가는 아사히신문에 "이전에 연주한 어떤 곳보다 더 훌륭하다. 사원의 음향 환경에 감탄할 지경"이라고 치켜세웠다.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진언종(神華宗) 사찰인 호케지(秋吉)도 2016년부터 연 3회 공연을 정례화했다. 이는 지역 아동들이 진정한 음악과 불교를 느낄 수 있도록 주지 조세이 세키토(Josei Sekito, 47) 스님이 시작했다. 스님은 음악가인 한 신도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공연을 열었고, 공연 장소와 시설에 만족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들을 초청하며 이후 공연들이 지속 개최됐다.


피아니스트 하야시 마사키가 지난해 5월 22일 린자이 사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음악과 불교 간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세키토 스님은 "음악과 종교는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 감정이 흔들리는 이에게 중도를 찾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음악가들은 사원에서 공연하는 것에 매료될 정도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 스님은 "나는 사원의 분위기와 장소의 독창성 때문에 음악가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원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듣기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조센지 사원의 주지인 신쇼 유키하마(Shinsho Yukiyama, 45) 스님은 "나무가 소리의 파동을 잘 흡수하고 높은 천고로 인해 공간 전체에 소리가 퍼진다"며 "이것이 사원 내부에서 음악이 공명하고 입체적으로 들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키하마 스님은 공연에 앞서 5분간 사원의 역사와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유키하마 스님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사원에 온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모임 장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나는 음악을 통해 낡은 불교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찰서 무연고자 납골시설 정비

日 오덴인, 크라우드 펀딩 통해 비용 마련

무연고자나 고독사 등 소외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 이러한 이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 정비해 화제다. 지난달 2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사카에 소재한 사찰, '오덴인(應典院)'의 미담을 특별 보도했다.

오덴인은 오사카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다이렌지(大蓮寺)의 암자로 약 400년 전에 세워진 고찰이다. 오덴인은 그동안 장례식이나 천도재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주지인 아키타 미츠히코(63) 스님은 최근 오사카시에서 무연고자나 유족이 인수를 거부한 시신이 증가, 지난해에는 2,366인의 유골이 시립묘지에 합사됐다는 뉴스를 접한 후 "사찰과 시민이 협력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모색하고 싶다"는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아키타 스님은 오덴인이 그동안 쌓아온 시민과의 협동 노하우와 본사 다이렌지의 종교 활동을 융합해 무연고자들을 위한 장례를 연구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다이렌지 경내의 휴식소 겸 납골당을 개축,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축에 드는 비용은 2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한다. 또 장례절차와 시설사용 등 세부적인 부분은 의료계, 사회복지사업, 상조회사 등 전문가들과 연대를 통해 계속 보완한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사찰로 모셔와 천도재와 장례를 지내는 방식으로 비용은 합동묘역 안장비인 5만엔(한화 약 51만원)과 화장시설 사용료만을 받으며 부가 비용은 받지 않기로 했다.

아키타 스님은 "사후에 장례가 보증돼 있다는 것으로 마음에 안정을 찾고,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고 싶다"며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의의를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연고자들을 위한 전용 장례시설로 사용될 법당을 소개하는 아키타 스님.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티베트 불교 탄압 거세지는 중국

복지수당 지급정지, 출가자 폄하 연극까지

가난한 티베트인 생존 위협
"지극히 정치적인 탄압 해석"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화'라는 명목으로 불교를 비롯한 중국내 종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규제가 이제는 탄압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비터 윈터'는 익명을 요구한 티베트인들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비터 윈터'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티베트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최저생활 복지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명령을 공고했다고 전했다. 이 새로운 명령으로 인해 지난 십수 년간 진행돼 온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규제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티베트 자치구 라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티베트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대규모로 몰수했다. 그 결과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최저복지수당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다"며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가난한 티베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라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티베트인들을 감시하는 관리자가 임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복지수당 수급자로서 종교생활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은 "매일 광장에 탑돌이를 가거나 절에 가는 것을 소일거리로 친구들을 만나곤 했다. 명령이 공지된 이후론 매일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전부"라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선업도 쌓지 못하고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고 슬픈 기색을 보였다.

인터뷰에 응한 한 티베트인 남성은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선 불교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에 따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며 "불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행을 하라 가르친다. 왜 이런 무해한 가르침에 탄압을 가하는가?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출가자를 폄하하는 대중공연을 상연했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에 거주하는 정보통은 "공안국이 주도해 출가자를 폄하하는 대중공연을 상연했다"고 전했다. 중국 동북부는 티베트불교를 믿어온 만주족의 거점지역으로 티베트불교 사찰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보통의 설명에 따르면 무직의 시민을 고용해 출가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역할을 배역하고, 공안이 티베트 승복을 입고 승려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공연에 참가한 시민에겐 하루 150위안이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정보통은 "공연장 옆에는 무장경찰이나 공안국 간부 등이 배석, 순찰차의 확성기로 공연 내용을 전파했다. 주차된 차들 가운데는 '돈을 돌려 달라'는 등의 문구를 선전하는 차들도 있어 마치 공연이 아닌 실제상황처럼 꾸며졌다"며 공연임을 모르는 시민들이 보기엔 불교와 출가자들에게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티베트 불교계의 주요 전통인 환생자 제도나 법계제도를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불교계의 고유한 부분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무슬림 불교 테러 보호조치

사원 보호 · 지역 경계 강화… 물질적 지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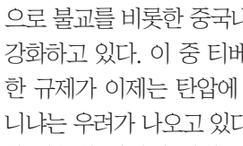
지난달 태국 최남부 나라티왓주 숭가이 빠이 구역 사원에서 총기테러가 발생해 두 명의 스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태국 당국이 불교사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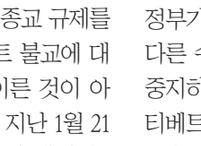
아시안 뉴스는 지난달 18일 오후 랏따나누빱 사원에서 발생한 무장괴한의 총기테러로 인해 이 사원의 주지스님과 그의 제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재 태국 사회는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 긴장감이 팽배하다. 무슬림 집단의 테러로 2004년 이래로 약 7000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이 중에 약 23명이 스님"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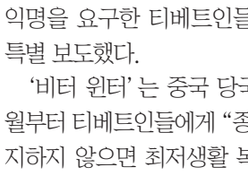
현재까지 총기테러를 벌인 무장괴한들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국 당국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정부와 NOB(National Office of Buddhism)는 불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피해가 빈번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슬림과 불교도 간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공동 행사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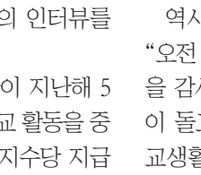
한편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태국은 100여 년 전 남부지역을 무력 합병했다. 남부 지역에는 무슬림이 대거 거주한다. 무장 단체 말레이무슬림은 2004년 반란을 시작했으며, 이들의 테러로 현재까지 약 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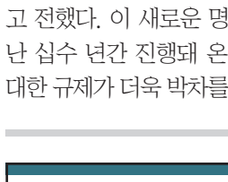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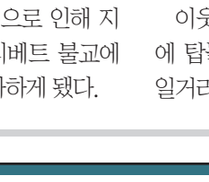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스스로 묻는 불편한 질문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③ 글쓰기 워밍업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본격 글쓰기명상을 위한 워밍업이다. 워밍업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마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의도로 설치했다. 목욕탕에서 손으로 탕 속의 물을 건드리면서 내 몸을 밀어 넣어도 괜찮은 온도인지 가늠하듯, 김이 모락거리는 밥을 후후 불면서 밥맞이를 하듯,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자는 의미다.

이런 준비과정은 정통수행이라고 하는 좌선(坐禪)에도 배치돼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평소 바깥으로 떠돌던 마음을 나라고 하는 대상에게 돌려세우는 작업을 빠알리어로 마나시카라(manasikāra, 주의전환)라고 한다.

마음의 방향을 '내 몸과 마음'이라는 대상에게 돌리는 일이 왜 필요할까. 질문을 바꿔보면 분명해진다.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주로 어디에서 놀고 있을까. 어쩌면 오전에 통화한 친구한테 가 있거나, 집에 두고 온 반려견에게 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기 일쑤인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몸과 마음에 깊이 배인 '떠도는 마음 습관' 때문이다. 글쓰기명상에서 워밍업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워밍업은 짤막한 자기 질문과 답변의 공간이다. 질문은 짧지만 답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나 살짝 머리 아플 수도 있다. 나는 가정폭력 피해쉼터 집단에서 이런 작업을 하곤 했는데, 갑자기 불심검문 당한 사람처럼 딱딱해지고 난감해하는 그분들의 표정들이 기억난다. 맞다. 직접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워밍업은 인생의 불심검문 같은 질문이 많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문득, "당신은 뭣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거요?"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심검문성 몸풀기 작업을 여기서는 세 개 단위로 나눴다. 첫 번째 워밍업은 삶의 전체를 조망하는 질문들로 구성했다. 비행기를 타고 지상 1000m 상공에서 사람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듯한 질문들이다. 두 번째 워밍업은 질문의 대상을 '나라고 하는 존재'로 제한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두 요소 사이에서 내 삶의 존재성을 확인해주는 '느낌'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당신의 내면으로 앵글을 들이대어, 우리 삶의 실질적 문제들을 겨냥했다. 일종의 생활 밀착형 질문이다. 답하는 초보수행자의 마음을 심란하게 긁어댈 수도 있다.

첫 번째 워밍업

당신은 아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전에 백지와 펜을 준비하시라. 찢어 없애기 좋은 종이 한 장이어도 좋고, 모바일 폰에 컬러노트를 다운 받아서 손가락 끝으로 글쓰기를 해도 좋다. 답을 하되, 짧게 답하라. 생각도 짧게 하라. 두뇌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툭, 하고 화투패 던지듯하라. 이번에 잘못 던졌으면 다음에 잘 던지면 된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라. 〈워밍업-1〉은 '삶의 동기 드러내기'와 '수행하는 마음 드러내기'로 구성된다.

삶의 동기 드러내기

1. 나는 이번 생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가.
2. 이번 생애,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3. 이번 생애 최종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행위는 무엇인가.
4. 지금의 삶과 최종 목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음껏 서술해보라.
5. 지금을 사는 이유, 한 달을 사는 이유, 금년을 사는 이유를 서술해보라.

수행하는 마음 드러내기

6. 내가 알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수행'이란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7. 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8. 내가 주로 행하는 수행의 방편(기도, 행선, 좌선, 염불, 경전독송 등)은 무엇인가.
9. 이번 생애, 내 수행의 최종 목표는?
10. 내가 수행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첫 말이나 선물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글쓰기명상 앞서
불심검문 같은 물음 던져
마음 방향 내면으로 돌리면
자신의 걸림 확인하게 된다

11. 나는 수행의 과정을 중요시했는가, 아니면 결과 중심인가.
12. 하루 중 내가 수행하는 시간과 밀도는?

답이 나오지 않아 건너 뛴 문항도 있을 것이다. 괜찮다. 건너뛰는 나를 허용하자. 아직 드러낼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닌 채로 내버려두자. 하지만 가급적 답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차피 내가 쓴 답은 자주 변하게 마련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듭 응답해보면 알게 된다. 내 마음을 문자로 드러내놓고도 시간이 흐르면 같은 질문에 다른 답하는 존재가 당신이다. 글쓰기명상이 기획된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나의 변화, 망각, 생각 없음 따위를 문자로써 드러내고 스스로 확인해보자는 제안이다.

길든 짧든, 글쓰기를 잘하는 팁이 하나 있다. 맥락상 이쯤해서 나눌만한 이야기여서 꺼내보겠다. 좋은 글쓰기 방법 중 하나는, 결론을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다. 글깨나 써본 분들이 열렬히 추천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소위 기결승전(起結承轉) 글쓰기. 결론부터 턱 하니 던져놓고, 왜 저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 그 배경을 서술하는 순서가 멋진 글을 만들어주곤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맨 앞, 첫 마디에 한 마디로 압축해서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사고부터 쳐놓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뒷글들이 따라온다.

나는 왜 느닷없이 '좋은 글쓰기 방법' 이야기를 꺼냈을까. 〈워밍업-1〉을 분석적으로 읽어보면 알게 된다. 〈워밍업-1〉은 대체로 삶의 최종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글쓰기명상의 첫 장에서 생의 결론부터 드러내보자는 의미이다. '이번 생애, 나의 최종 목표'부터 떡 하니 드러내고 보면, 그 목표를 옹위하는 사유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이유, 온갖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죽어라고 웃으며 살아가는 이유, 넘치는 일더미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이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질시 받거나 오히려 야단맞으면서도 일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이유의 꼭짓점에 저 결론이 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서 이번 생에 태어났단 말인가."

〈워밍업-1〉은 기결승전 글쓰기 순서로 대입해 본다면 '결(結)'에 해당한다. 내 삶의 끝을 겨눠보면서 글쓰기명상을 시작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삶의 끝을 선명히 보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 워밍업

〈워밍업-2〉는 꽤 구체적이고 대상 범위도 좁아진다. 소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 등분하면 몸, 마음, 느낌이다. 이것들을 살펴서 짧은 단어로 드러내는 일이다. 이 작업은 1분이라도 눈을 감고 몸 전체를 이완한 후, 한층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좋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느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요한 만큼 이것들은 붉은 열매처럼 선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의외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없던 짜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만큼 나는 나에게 낯설기 때문일까. 그래도 고요히 밀고 가보자.

내면검색-몸

1. 내 몸 안팎의 명칭들, 세세히 적기
2. 살면서 내 몸은 주로 어디에 써 왔는가(5개 이상)
3. 아무도 모르는 내 몸의 특이한 점이나 흉터
4. 내 몸의 미안한 부위, 사건, 기억, 생각들(5개 이상)
5. 내 몸의 고마운 부위, 사건, 기억, 생각들(5개 이상)
6. 내 몸이 나에게서 분리되어 떠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내면검색-느낌

7. 지금 이 순간의 몸 감각 명칭 적기(찌름, 간지러움 등)
8. 내 감정(정서)의 명칭 적기(상쾌함, 편안함, 두려움 등)
9. 내가 좋아하거나 잘 유혹당하는 감각(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기타)
10. 내가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감각(상동)
11. 내가 좋아하거나 호감 갖는 사람의 공통적인 느낌
12.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특징
13. 내가 싫어하는 음식의 특징
14. 내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감각이나 감정들

내면검색-마음

15. 살면서 내 마음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16. 살아오는 동안 강력하게 애착했던 대상(3가지 이상)
17. 요즘 내 마음이 주로 가는 장소, 사람, 물건, 시간 등
18. 향후, 내 마음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가
19. 내 마음이 내 몸에서 분리되어 떠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 데어 콜크(Bessel Van Der Kolk)는 회복에 대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각과 감정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쥐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끼고, 정확히 밝히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워밍업-2〉는 그 회복을 위해 '나에 대한 눈맞춤'을 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제 더 구체적 행위의 안쪽으로 전진함으로써 보다 깊은 발견과 아픔, 회복의 시공을 걷는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문 의 : (02)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피부·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 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대행 스님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까닭을요. 정말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요. 아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이구, 언제나 그 노랑두 상투를 길러서 내 낭군 되느냐.' 하는 셈으로 '언제나 길러져서 진짜 자유스럽게 저 집안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허! 날더러 하라고 뭐, 등에 써 붙였나?'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임은 소임대로 아주 끊고 맺고 해야죠. 못하든 잘하든 말입니다.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덮어놓고 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해야죠. 이 세상 진리가 아주 거짓 없이, 선업이면 선업대로 피할 길이 없고, 악업은 악업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이러는데 왜들 싫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바가지로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스님 복 많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고구정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미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신선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해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이 싫어서 신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이 싫어서,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은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부자를 건너다 볼 수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허허허…. 포기해서 신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신선이라는 것은, 내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도리를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안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에요. 그러니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오는 대로 모든 것을 대치해서 놓고, 가는 것도 잡지 말아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공부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선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질문자1(남)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처지가 힘드니까 신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스님 으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서 아주 피치 못하고 그냥 사는 거니까, 자기가 벌여 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못나게 나오는 것도, 모습을 짐승으로 나오는 것도 뭐, 개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놨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한테 원망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닥치는 대로 그것을 재료로 알고, '어, 내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러고선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간다면 다시금 그게 바꾸어지죠. 운명이나 팔자,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없어지죠. 지금 없애고 가시는 길이죠, 모두.

질문자1(남) 예, 스님 말씀을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큰스님 예. 사실인 걸요, 뭐.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감이 태어나기는 해도 이 땅이 골육상전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 보아도,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더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런데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국민성이 물질로만 치닫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계의 그 모든 너그러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숨겨져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서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치워 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상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보죠. 아까 내가 떡 먹는 사람 얘기했죠. 저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이야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생명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세계로 비추어 볼 때 전력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력들은 다 통하게 돼 있죠. 어떤 용도로 쓰든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바퀴와 저 불바퀴를 한데 합치면 (손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둘이 아닌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어.' 하고 관해 보세요. 모두 물질계에서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밟으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마음들을 한데 합쳐서 기울여 보시면 중국에서 말한 뜻이 아마 나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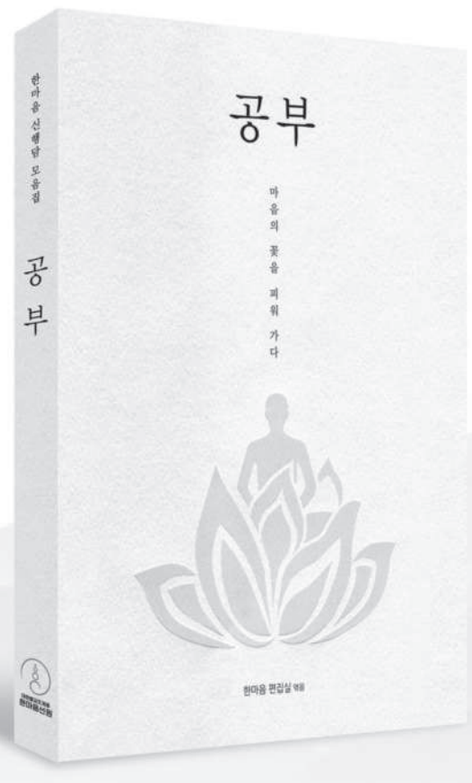
질문자1(남)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그렇죠. 평등공의 법이라는 것은 철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깐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유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큰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 말라

☞ A17면에서 계속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큰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애는 애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랬지 누가, 아니, 어른 노릇 해야 할 때 애 노릇 하라고 그랬고, 애 노릇 해야 할 때 어른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들까 봐, 자기의 속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효(孝)고 거짓이 아니죠. 또 자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못 하죠? 그게 거짓 아닌 거짓이면서도 아주 참, 뜻이 깊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거짓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질문자1(남)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겠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른이 다 됐다고 우기는 그런 입장에….

큰스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처가 돼도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죠. 댁들 몸속에 중생들이,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자1(남) 더불어 먹었죠.

큰스님 더불어 먹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다" 그러고 내세울 수 없죠?

질문자1(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하고 천차만별로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랬으니 이게 닥쳐오는 대로 그러한데 뭐가 그게…. 할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다 내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다' 한다면 이 속의 생명체들이 '흥, 네가 했다고,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너 혼자 실컷 알아 봐라. 너 혼자 실컷 해 봐라.' 이러고선 작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자꾸 빗나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게 이 부처님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 나 혼자만이 있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여래니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큰스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생활의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그러죠.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공부를 하되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건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허허,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드냐 하면, 소로 살았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찰나 알았으면 훌떡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수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여물만 먹고 삽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먹히는 고기나 먹는 사람들도 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큰스님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점이 있죠.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어요. 제자가 생각을 하니 참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그냥 수백 마리를 잡아서 푹 고아 가지고선 그거를 체에다 착 받쳐 가지고 버리고선 '지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리니까 "이게 무슨 물인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고은 물입니다." 하고선 갖다 드렸더니 그것을 먹고 병이 완쾌돼서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랍니다. 그래도 이것은 풀뿌리라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아닌 거짓이 효가 된다 이랬죠.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그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을?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죠.

질문자2(남)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러고 그저 '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약간 맴돌고 있기에 질문드리러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댁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게 묘법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 소리예요. 한 구멍에다가!

질문자2(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옳은 길이면 가면 된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만, 도반들이 '선행이 있으면 악행도 있는데 선행과 악행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고 합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받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해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그 왜냐? 전력에 비유한다면 어떤 용도에 쓰든 전력이 똑같듯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 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리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 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해서 각계각층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데는 의사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 주고, 또 좀 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칠성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툰단 말입니다. 딴 걸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서 보고, 발자국을 떼어 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차차차차 잘못되는 그 자체를 잘되게끔 자꾸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야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지라는 거지,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인과가 돼서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을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도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고서 거기다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말 한마디 또 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네? 녹음한 대로 차례차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녹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쌓여졌다고 할까요? 쌓여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은 그렇게 잘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 앞에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서 그게 모두 다 녹아야 되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어, 이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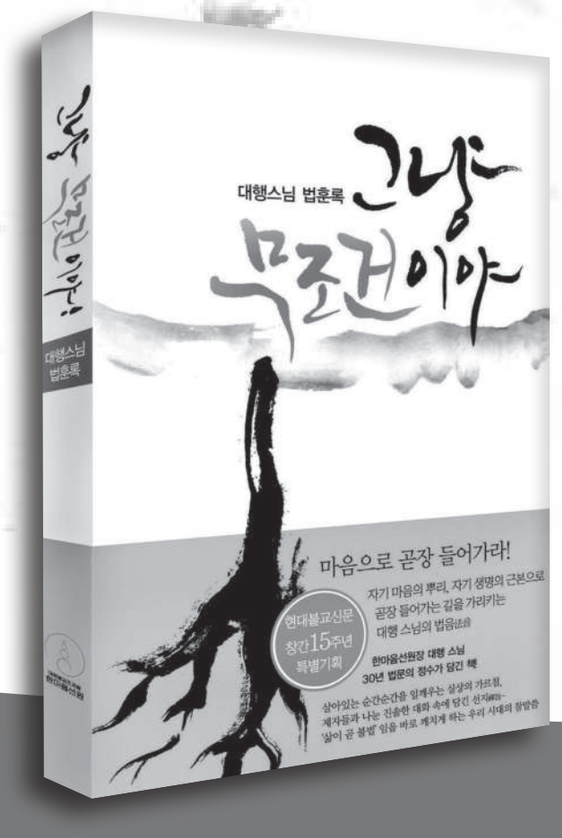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입력된 걸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질문자2(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 없어지는 것이니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오늘을 설날처럼 산다면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예로부터 설은 '삼가는 날'
지난날 반성 · 새로운 삶 다짐
그래서 설날은 '설렘'의 날이다

현재 설날, 이벤트만 난무해
신년 계획, 잘 지키고 있는가
설맞아 재시작 결심 많이 해

현재가 바로 출발의 원점이다
지금 오늘이 바로 설날 아닌가
현재를 '설렘의 설날'처럼 살길

기해년 '설날'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설날'은 그야말로 '설렘'의 날이었다. 설날은 온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새해의 첫 출발을 기리는 축제였다.

설날은 '삼가는 날(愼日)'이라 한다. 지난해의 불행과 잘못은 몽땅 섣달 그믐날 밤의 화톳불에 날려 보내고 설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엄숙한 날이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단정하게 갈아입고 새 음식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집안과 마을의 어른들에게 세배로 인사드리며 새해의 새 삶을 다짐한다. 새해의 거룩함 속에서 즐거움이 따르는 축제가 같이 했다. 설날은 거룩한 축제의 날이었고 환희의 날이었다. 불교 신자들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앞에 조상을 기리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새 삶을 다짐했다. 그래서 설날은 '설렘'의 날이다.

그런데 지금의 설날은 설렘은 사라지고 이벤트만 난무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태양력이 공식화됨에 따라 양력 설날이 등장했다. 신정이 설날이 되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설날은 '민속의 날'이라는 민망한 이름을 가지기도 했다.

1989년 음력 정월 첫 날이 설날로 다시 자리 잡았다. 이제 양력의 1월 1일은 그냥 새해의 첫 날인 신정이 되었고, 음력의 첫 날은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설날을 전후한 3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 시간은 오직 빛으로만 측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태양과 달의 운행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여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과 함께 산다. 달력이 일상생활의 나침판이다.

나의 청소년 시절이 새삼 기억난다. 1월 1일 신정이 되면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일기장을 사기도 한다. 며칠 못가 무너지면 구정, 즉 설날까지 유예하다가 설날에 또 큰 결심을 한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삼일절을 재출발의 날로 정하고 미룬다. 생일도 중요한 새 출발의 날이 된다. 재출발의 단위는 주간단위로 단축되어 월요일이 되기도 하였다. 마치 바위를 굴리며 산을 오르다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이런 경험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 않을까한다.

붓다의 무기(無記)설법이 생각난다.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세계가 영원한지,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어떤지, 내생은 있는지 없는지의 등 이론적 호기심에는 침묵하면서 지금 여기서 독화살을 맞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와 연속된 현재이고, 미래로 연속될 현재이다. 현재는 스스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미 없는 과거와 아직 없는 미래를 존재로 전환하고 그 존재를 서로 연결한다.

그 중심에 깨어 있는 의식인 '나'가 있다. 나는 시간의 주체다. 현재는 미래를 기획하고 과거를 새롭게 만든다.

현재야말로 바로 출발의 원점이다.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이 설날이 아닌가? 바로 지금 현재를 설렘을 가지고 설날처럼 지낸다면 우리 모두 행복할 것이다. 설날의 설렘을 노래한 안도현 시인의 '닭이 울어 해는 뜬다'의 시구로 글을 마감한다.

저 먼 동해 수평선이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 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첫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기자칼럼
윤호섭 기자

조계사 템플스테이 1등 비결은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의 템플스테이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서울 명소로 꼽히고 있다. 중국 최대 여행정보 플랫폼인 '마펑워' 조사에서다. 마펑워는 서울시에서 개별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소개용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10대 명소를 선정, 짤막한 소개 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명소는 △조계사 템플스테이 △명동 닭한마리 식당 △명동 난타공연장 △신세계면세점 △K-Pop 댄스 체험 △서울스카이 △메이필드호텔 △영등포 포장마차 △OGN e-스타디움 △MBC월드 테마파크(조회수 순)다. 명소를 소개하는 모든 영상에는 배우 천린(陳淋)이 직접 체험하고 관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에서 조계사 템플스테이는 1월 29일 기준 조회수 6만9720회로 2위인 닭한마리 식당(4만4998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조회수가 직접적인 관광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체험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소개 영상에서 천린은 조계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공양간에서 식사를 마친 뒤 연등 만들기와 명상 등을 체험하며 소감을 전한다. 천린은 템플스테이를 한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됐다는 말과 함께 "어렵지 않은 체험으로 집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계사 템플스테이는 지금처럼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고, 굳이 도심 속 조계사를 찾아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만큼 독특한 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現주지인 지현 스님의 부임 이후부터다.

지현 스님은 봉화 청량사에서 다양한 포교방편으로 도량을 일군 경험을 앞세워 템플스테이를 가꿔나갔다. 종로를 찾아온 외국인들과 늦은 저녁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문화가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 '달빛 조계사 수요음악회'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해 지현 스님은 밤을 새워가며 직접 경내 조명각도를 맞추기도 했다.

해가 진 뒤 컴컴해진 종로를 사찰이 환히 밝히자 인근 호텔에 묵던 외국인들은 거리로 나와 사찰로 향했다. 사찰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다는 아일랜드인, 아들과 함께 좋은 체험을 했다는 스웨덴인, 동남아시아 사찰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베트남인까지…. 종로를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은 조계사를 쉬이 지나치지 않았다.

마펑워가 선정한 새로운 서울 10대 명소에서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1위를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단순히 도심 속에 사찰이 있다거나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결과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뒷이야기도 있다. 서울시가 마펑워에 명소 선정 시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넣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또한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종교가 위기라는 시대, 불교도 비껴갈 순 없다. 하지만 사찰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대중이 바라보는 불교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社 說

미래포교 준비는 조계사처럼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집과 청년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한국불교 미래의 동량을 키워낸다는 신년 계획을 1월 29일 발표했다. 조계사는 2016년 조계사 인근 을유문화사를 인수했다. 당시 을유문화사 건물의 용처를 두고 교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놀랍게도 조계사의 결정은 어린이집이었다. 사실 사찰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흥천사를 비롯해 몇군데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함께 기도 중심의 사찰문화가 함께 겹쳐진 결과다. 고연령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사찰 내 행사가 많다보니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어린이법회 정도만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올해 8월이면 개원하는 조계사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춰 움직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3월 개원하는 조계사 청년센터도 마찬가지다. 청년법회가 있는 곳도 드물지만, 사찰 청년회가 제대로 사무실과 수행공간,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사찰은 사실상 전무하다. 조계사는 조계사 인근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올해 진행되는 주민자치센터로, 2층부터는 청년회 사무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세대별 포교, 특히 조직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 한국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기도를 위한 전각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찰을 사랑방처럼 쉽게 찾아 함께 사찰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바로 한국불교의 초석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3.1운동 100년, '평화'로 장엄하자

2019년 기해년 상반기 한국사회의 최대 기념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이다. 이미 정부부터 사회 각계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불교계 역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를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은 오는 2월 28일 불교평론과 함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3월 1일 당일 정부 공식행사에 앞서 조계사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를 비롯한 한국사회 주요종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도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종교 · 시민사회단체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1월 29일 열렸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오롯이 개최되는 범국민대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3.1운동 100년 선언문'이 선포되기 때문이다. 100년 전 독립선언문이 민족의 자주와 식민 해방을 외쳤다면 지금은 "한반도를 영구한 평화지대"를 선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실 3.1운동은 자주 독립선언이자 모든 존재의 평화와 번영, 평등을 이야기한 인권선언이기도 했다. 또한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었다. 3.1운동으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당시 기안된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바탕이 됐다.

100년을 맞은 3.1운동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뭇 생명들의 자주와 독립을 통한 '평화'라는 운동의 가치를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3.1운동을 바르게 기억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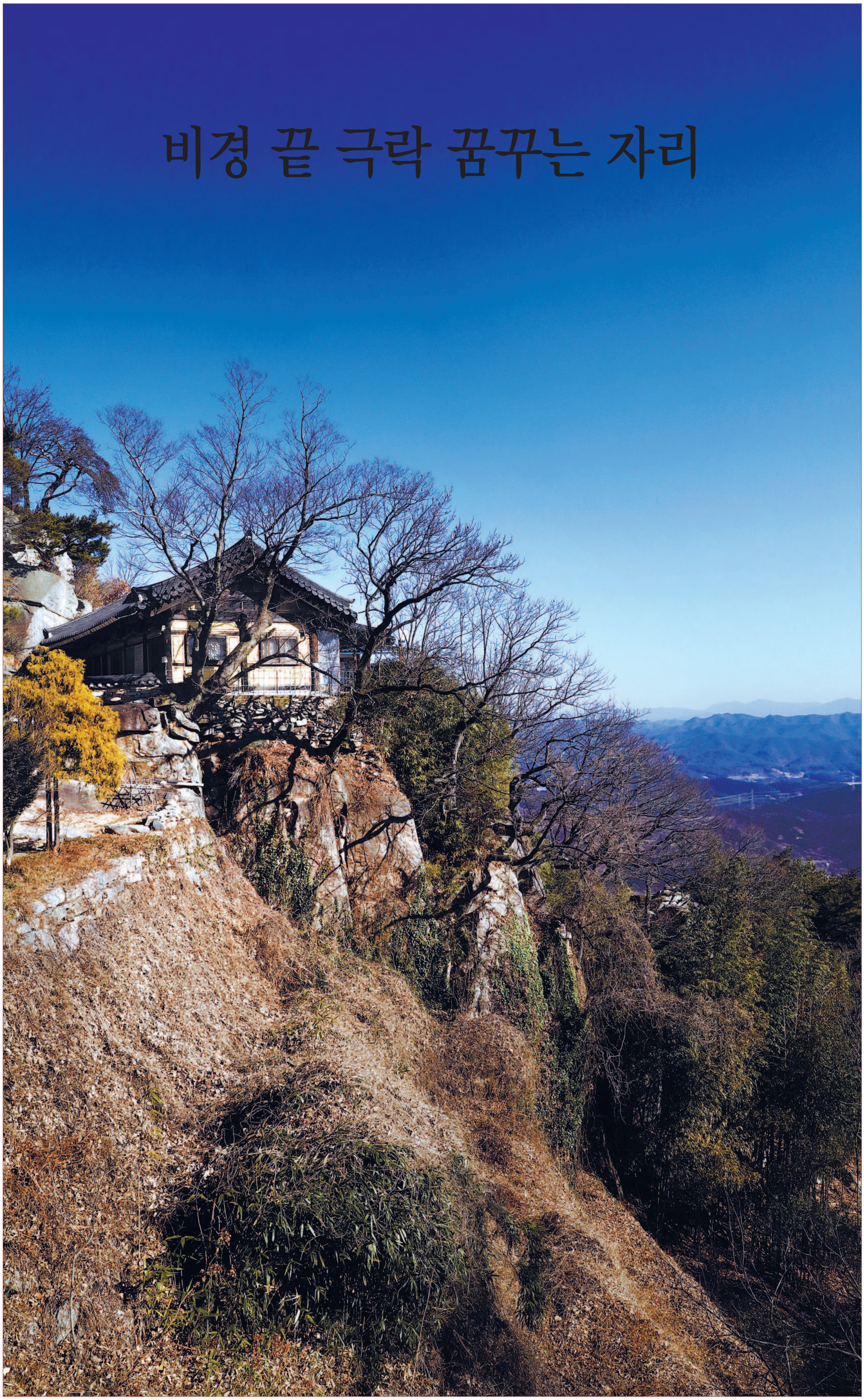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사
• 주 소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영오길 151-31
• 주 지 : 정래 (속명 : 강동만)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비경 끝 극락 꿈꾸는 자리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① 경남 산청 정취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 꽃들이 피고 져온 자리, 새들이 살아온 자리, 숲이 지켜온 자리, 중생이 걸어온 자리, 깨달음으로 가는 불보살의 자리 등 그 자리는 자리마다 불가설불가설전의 시간과 무궁무진의 까닭으로 있어온 인과의 설법이다. 그 자리 하나하나에 깃든 시간과 까닭의 끝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니 옮기는 자리마다 더욱 깊은 시간과 더욱 선명한 까닭 속에 있어야 하리라. 그 뜻이 쉽지 않음으로 우리는 길과 길 사이에 불전을 세우고, 산기슭마다 불보살을 모셔왔다. 그 길과 산을 잇는 불보살의 자리를 찾아 쉽지 않은 뜻에 다가가 본다.

B2면에 계속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순례길서 만난 인연들

B5

문화
노재학 사진전
한국산사의 단청문양과 사찰벽화의 美

B6

학술 · 문화재
불교사회연, 3.1운동 자료집 발간

‘절벽 위에 핀 연꽃’…유일한 정취관음성지

‘경남 산청 정취암’ B1면에서 계속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말사인 정취암은 통일신라 신문왕 6년(686)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정취암 목조관음보살.



산청8경 정취암 조망.



정취암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

산 밑으로 여명이 번져오고 이내 능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불구불 산허리를 돌자 멀리 산기슭에 암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앙상해진 숲이 겨울을 나고 있고, 계절을 타지 않는 바위 밑에 전각들이 모여 있다. 암자는 나무를 베지 않고 터를 잡았다. 바위가 내어준 벼랑 끝에 새처럼 앉아 있다. 경상남도 산청의 명산이자 진산인 대성산. 산은 오래 전, 나무를 기르지 않는 작은 터에 암자 하나를 들였다. 해발 450m, 정취암이다.

산청8경, 정취암에서 비경을 보다

작은 암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일주문이 따로 없다. 암자의 끄트머리가 보이는 자리에서 합장한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산문의 경계는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경계인 것 같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에 따라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산문으로 들어서는 순간은 작은 의식이 아닐 수 없다.

겨울바람에 실려 온 풍경소리가 객을 맞아준다. 풍경소리도 겨울을 나고 있다. 멀리 가지 못했다. 작은 마당을 맴돌다 이내 바람이 되었다. 풍경소리가 사라진 자리로 산을 오르면서 보았던 전각들이 커다랗게 다가온다. 벼랑 끝에 앉은 전각은 이제 파란 하늘에 안겨 있다. 전각 덕분에 파란 하늘 곁에 서본다. 발밑으로 지나온 길과 지나온 풍경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나온 것들을 바라보는 일은 사라진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며, 그 기회들로 삶은 고개를 숙인다. 정취암에서 내려다보는 산청의 풍경은 산청9경 중 제8경으로 꼽히는 비경이다. 황매산의 능선들도 보이고 바람의 모습까지도 보이는 듯하다.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듯했지만 산 아래서 힘겨웠던 것들은 산 위에서 보이지 않았다. 힘겨웠던 이름도 힘겨웠던 기억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비경’ 일까. 그래서 암자가 있는 것일까. 하기야 어디 정취암 뿐일까. 불전을 뒤로 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가 비경이리라.

아침을 기다렸던 산새들이 서로를 부르며 숲을 깨운다. 멀리 줄을 지어 늘어선 능선들의 끝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새들은 더욱 요란스럽게 서로를 부르고 도량의 전각들이 선명해진다.

정취보살의 관음도량, 극락으로 가는 길

정취암은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말사이다. 정취암을 품고 있는 대성산은 일명 둔철산이라고도 한다. 산이 크고 넓어 곳곳에 사찰이 흩어져 있다. 대성산 정상 근처 기암절벽에 자리한 정취암은 그 모습이 아찔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그 모습으로 정취암은 ‘절벽 위에 핀 연꽃’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큰법당인 원통보전이 아침 햇살을 받는다. 원통보전에는 관음보살을 모셨는데, 정취보살이다. 정취암은 한국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취보살을 모신 관음성지다.

정취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도 하고, 〈화엄경〉 ‘입법계품’ 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법수행 중에 만난 53선지식 중 29번째 선지식이다. 〈화엄경〉을 보면 정취보살은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다. 선재가 찾아가기도 전에 직접 관자재보살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데, 도착하자마자 세상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몸에서 엄청난 광명을 놓으니 해와 달과 별, 번개의 빛이 무색하다. 정취보살의 광명 앞에 그 어떤 광명도 빛을 내지 못한다. 정취보살의 광명은 모두 육도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비추어 그들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비장하면서도 장엄한 광명이다. 그 모습을 바라본 선재는 정취보살에게 보살도의 행과 보살의 길을 묻는다. 정취보살이 법을 전한다.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넓은 문 빠른 행의 해탈(보문속질행해탈 · 普門速疾行解脫)이다. 이것은 오직 선지식과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동방 묘장세계의 보승생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왔으며,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왔다.”

그래서 정취보살을 모신 정취암은 극락으로 가는 길목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원통보전에 들어서면 선재동자에게 법을 전하고 있는 50cm 남짓한 키의 정취보살상을 만난다. 극락을 품은 보살의 눈을 바라보며 극락을 꿈꿔본다.

현재 원통보전에 모신 정취암목조관음보살(경남 문화재자료 314호)은 조선 효종 5년(1654)에 정취암의 중창조인 봉성당 치헌선사가 재현해 새로 조성한 것이다. 정취암의 정취보살상은 신라의 범일 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스님은 당나라에서 만난 신라 출신 사미와의 인연으로 낙산에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상을 모셨다. 백여 년이 흐른 후 몽고가 침략하여 정취보살상을 양주성으로 옮겼고, 다시 기림사의 각유대사가 어부(御府, 궁의 창고)에 옮겨 모셨다. 그리고 고려 공민왕 3년(1354), 화경거사와 경신거사가 정취암을 중수한 후 궁궐에 모셨던 정취보살상을 다시 모셔왔다. 이후 전각에 화재가 있어 보살상이 소실됐고 지금의 보살상을 새로 모신 것이다.

해발 450m 벼랑 끝 암자
산청9경 중 8경 정취암 조망
선재가 만난 29번째 선지식
정취보살 모신 관음성지

연꽃무늬로 장식된 대좌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상은 불신(佛身)과 엎어놓은 연꽃무늬가 새겨진 낮은 대조가 하나의 목재로 조성됐다. 자세는 등을 세우고 머리 부분을 약간 앞으로 내민 모습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은 중앙에 큰 화불(化佛)과 앞뒤로 불꽃무늬 장식이 달려 있다. 후대에 따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얼굴은 네모반듯하며 턱이 둥근 형태이고, 가늘고 긴 눈, 완만한 콧등, 입술, 양 끝에 양감을 주어 미소를 머금은 모습 등이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비교적 짧은 목에는 삼도가 엷게 그려져 있고, 옷 주름선은 대체로 간략하다. 반가부좌하여 드러난 오른발 밑으로 보이는 군의자락을 종아리와 평행하게 드리운 것이 특징이다.

원통보전 뒤로 돌계단을 오르면 응진전과 산신각이 나온다. 정취암 산신각의 산신탱화(경남 문화재자료 243호)는 호랑이를 타고 행차하는 산신을 협시동자가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순조 33년(1833)에 제작됐다. 산신각 밖에 조성되어 있고 전각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응진전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소나무숲이 발길을 붙잡는다. 응진전 처마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를 들으며 소나무 숲을 지나면 정취암을 품고 있는 바위 끝에 닿는다. 너럭바위에서 잠시 긴 호흡으로 서면 발 아래로 암자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암자와 함께 펼쳐진 사바가 다시 한 번 비경으로 다가온다.

의상의 불사, 고승대덕의 요결처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말사인 정취암은 통일신라 신문왕 6년(686)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동해에서 아미타부처님이 솟아올라 두 줄기 서광을 비추니 한 줄기는 금강산을 비추고, 다른 한 줄기는 대성산을 비추었다. 이때 의상대사가 두 줄기 빛을 좇아 금강산에 원통암을 세우고, 대성산에는 정취사를 세웠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 중기의 기록에는 ‘정취사’ 로 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에서 구한말 사이에 조성된 불화 화기에는 ‘정취암’ 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는 공민왕의 개혁의지를 실현하고 원나라와 명나라의 간섭을 극복하려는 개혁세력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다.

금강산 못지않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린 대성산에 그 터를 잡은 정취암은 창건 이래로 많은 고승대덕들의 요결처(了結處)였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도 한 때 주석하며 정진했다.

극락을 꿈꾸는 자리

산기슭의 작은 벼랑 끝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열고 중생을 기다리는 작은 암자. 그 뜻깊은 보살의 도량에 석양이 번져온다. 불가설불가설전의 시간 끝에 다시 찾아온 오늘 하루가 그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다시 사라져간다. 산새들이 다시 서로를 부르고, 깊었던 시간과 선명했던 세상의 까닭들이 보살의 미소와 함께 내일을 기약한다. 극락으로 가는 길, 정취암에서 극락을 꿈꿔본다.

정취암 가는 길

정취암은 해발 450m 벼랑 끝에 자리하고 있지만 암자 앞까지 도로가 나있어 승용차로 암자까지 갈 수 있다. 산청 IC로 나와 60번 지방도로를 따라 간다. 정취암을 약 2.5km 앞둔 지점에 정취암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다. 그곳에서 약 800m 오르면 정취암으로 갈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산청합동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다. 노선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시코쿠 순례 매력은 '사람'에 있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⑭ 순례길서 만난 인연들


27번 코노미네지 대사당에서 예불을 올리는 일본의 단체 순례자들. 순례길의 매력은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산 정상 27번까진 고난의 행군
친절부터 자기중심적 사람까지
다양한 인간군상들 체험하기도
순례길엔 다채로운 얼굴 있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의 코보대사상. 흔히 수행대사(修行大師)로 불리는 모티프이다.

새벽녘 목청껏 우는 닭 울음에 눈을 떴다. 나름 번화한 시내인데 대체 어디서 우는 건지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알람을 맞춰둔 것보다 1시간 반이나 이른 5시 30분이다. 침낭 속에서 좀 더 꾸물대다 부스스 일어났다. 지난밤은 다행히 모기가 많지 않아 편안히 잘 수 있었다.

지도를 가늠해보니 오늘은 여기서 31km 정도 떨어진 젠콘야도까지 걸어야 한다. 평지라면 무난한 거리지만 27번 코노미네지(神峰寺)가 산 정상 근처라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해가 떨어지기 전엔 도착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아침 6시, 오늘도 걷기를 시작한다. 아침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 온다.

"오헨로상!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이르네요, 조심해서 순례하세요!"

시코쿠 순례길은 언제나 이런 친절들이 아름답게 반짝인다. 순례자라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은혜를 입는다. 에히메현에서 하룻밤 함께 노숙했던 나이든 순례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시코쿠 순례란 건 참 묘해. 보통 나 같은 늙은이가 길가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인사했다간 '저 영감님 노망났나' 고 하겠지. 하지만 이곳은 아니야. 모두가 눈을 맞추고 '오헨로상' 하고 웃어준단 말이야. 난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하고 감동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벽의 찬 공기가 모두 물러갔을 무렵 27번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27번으로 향하는 순례는 까마득한 산길이다. 3.5km의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야 한다. 오르막이 제법 가파르고,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와야 하니 짐을 등산로 입구의 민가에 맡기거나 벤치에 풀어두고 사찰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등산로 입구의 벤치에는 어느 순례자가 이미 다녀간 듯 배낭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일단 벤치에 앉아 미숫가루로 아침을 먹으며 잠시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힘을 뺐다가는 오후에 걷기 힘들 것 같아 나도 짐을 풀어두고 몸만 오르기로 했다. 아무리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라지만, 배낭을 아무렇게나 풀어놓고 오르기엔 조금 불안하여 근처 민가에 짐을 부탁하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집 안쪽에서 대꾸하는 말이 들리더니 잠시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신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시코쿠에서 이런 눈치를 받은 건 또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입니까?"

"27번으로 향하는 순례자인데, 혹시 배낭을 여기 잠깐 맡길 수 있을까 해서요."

"상관없지만, 잃어버려도 난 책임 못 져요."

"아, 괜찮습니다. 어디에 두면 될까요?"

"저기 헛간 안에 두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헛간에 배낭을 두고 감사 인사를 할 때까지 빤히 나를 쳐다봤다. 눈치가 보였지만 일단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 27번으로 향했다. 사실 할아버지의 태도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시코쿠의 친절에 감동하며 걸었던 터라 갑자기 싸한 응대에 연신 갸웃갸웃하며 길을 올랐다.

차도를 따라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는 순례길에 접어들었다. 순례길은 구불구불한 차도를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산길이다. 순례길을 오른 지 얼마 안돼서 나처럼 빈 몸의 순례자가 길을 내려온다. 등산로 벤치에 있던 배낭의 주인인 것 같았다. 일단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도보 순례자인가요?"

"네, 배낭은 아래 민가에 맡겨두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올라올 때 벤치에 배낭 하나 있지 않던가요?"

"네, 무사히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를 겸 서로 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배낭을 맡기며 경계의 눈초리를 받은 이야기를 하자 그 순례자가 웃으며 설명해 줬다.

"그럴 만 해요, 요즘 순례자를 가장한 노숙자나 강도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배낭을 맡아 달라며 대량의 짐을 놔두고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거나, 예를 표하겠다며 집안에 무턱대고 들어오곤 해요. 그래도 당신처럼 젊은 사람은 드물어 반신반의하며 배낭을 맡아 줬을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순례자라는 신분을 믿고 친절을 베푸는 시코쿠의 사람들, 그리고 그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순례길도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나 역시 그 호의에 너무 기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반성하게 된다.

"그래도, 나처럼 벤치에 그냥 둔 채로 온 것 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잠깐 배낭을 두고 다녀온 사이에 배낭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도보순례자들은 보통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배낭에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표적이 됩니다. 특히 순례가 끝나가는 에히메나 카가와현이 위험해요. 배낭에 있는 납경장이나 납경족자를 도난당했단 이야기가 많습니다. 납경이 많이 된 것들은 수집가들이 비싼 값에 사들이기 때문이죠."

순례자는 나에게 아무리 순례길이라도 주변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충고하곤 길을 내려갔다. 왜 할아버지께서 그리 경계하셨는지 의문이 풀렸기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오를 수 있었다. 1시간 남짓 헐떡대며 오르막을 오르자 27번의 산문이 나타났다.

산문을 기점으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왼쪽은 27번 코노미네지, 오른쪽은 코노미네 신사(神峰神社)로 가는 길이다. 코노미네지는 원래 신사와 절이 함께 있는 신불습합(神佛習合)의 도량이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분리되긴 했지만 아직도 산문을 같이 쓰는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산문을 들어서고도 좀 더 나아가자 납경소와 요사채가 나오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이 계단을 올라야 본당과 대사당이라는 안내판이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는데 또 계단을 오르려니 머리가 아찔했다. 일단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납경소 앞의 평상에 앉았다.

평상 옆으로는 시원한 석간수가 폭포가 되어 솟아나고 있었다. 사찰의 명물인 '코노미네노 미즈(神峰水)' 라는 샘이다. 산 아래 마을에서 중병을 앓던 여인이 코보 대사의 현몽으로 이 물을 마시자 곧바로 병에서 완쾌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여러 병을 치유하는 약수로 유명하다.

잠시 땀을 닦고 물을 받아 마셨다. 물맛이 달고 시원했다. 순례를 오기 전에는 '물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했는데, 매일 같이 물을 끊임없이 마시니 미묘하게 다른 물맛을 알게 됐다. 거기다가 이곳의 물은 산 정상 근처의 석간수다보니 물에 암기(巖氣)도 느껴졌다. '차 내리기 참 좋은 물' 이라고 생각하며 물통에 가득 물을 받았다.

산문 쪽에서 시끌시끌하게 단체 순례자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단체 순례자들이 오면 아무래도 여유롭게 참배하기 힘들어 바로 본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미 본당에도 단체 순례자들이 한 팀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헌데 단체팀을 이끄는 센다츠(先達, 순례지도자)가 촛대를 슥 보더니 켜져 있는 초를 뽑아서 꺼버렸다. 순간 놀라서 가만 보고 있으니 자신이 이끄는 순례자들에게 빈자리에 초를 켜라고 안내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빈자리가 없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초를 아무 주저함도 없이 꺼버리곤 자기 사람들에게 초를 켜라고 하는 모습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았다.

참배를 마치고 납경소에 내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단체 순례자들이 먼저 납경을 받고 있었다. 납경장에 족자까지 못해도 60여 개는 넘어보였다. 어쩔 수 없이 납경장을 들고 문가에 서있으려니 직원이 나에게 말을 건다.

"도보 순례자인가요? 그렇다면 납경장을 먼저 주세요. 도보 순례자부터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납경장을 한 쪽으로 밀어두고 일필지휘로 써주신 납경장을 다시 받아 들고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다시피 산을 내려갔다. 배낭을 맡겨둔 집에 도착해 보니 배낭은 처음에 두었던 그대로 있었다. 배낭을 둘러메고 감사인사를 하려고 집안을 향해 여러 차례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아마 밭일을 하러 나가신 듯했다. 오사메후다에 감사 메시지를 써서 문틈에 끼워두고 순례길로 돌아왔다.

이제 오늘의 숙소인 젠콘야도까지 부지런히 걸어갈 일만 남았다. 길을 걸으며 싱숭생숭한 마음을 진정하기가 힘들었다. 오늘 아침부터 사찰을 순례하고 내려오기까지, 하루 반나절 만에 꽤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나눈 친절한 인사들, 배낭을 맡기는 나를 경계하던 할아버지, 짐을 조심하라며 충고하던 순례자, 초를 주저 없이 꺼버리던 센다츠. 시코쿠 순례길도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27번으로 들어가는 산문과 신사로 올라가는 갈림길.

– 힘들다고 짐을 풀어두고 사찰을 참배하거나, 왕복하는 길을 다녀오는 경우 도난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짐 단속에 주의하자.

– 코노미네지를 오르기 전에 짐을 맡기는 것이 좋긴 하지만, 순례기처럼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만약 전날 숙소를 잡고 순례했다면 숙소에 부탁해 짐을 맡기고 다녀오는 것이 좋다. 실제 많은 일본인 순례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 코노미네지도 츠야도(순례자 숙소)가 있긴 하지만, 납경시간이 마치는 오후 5시경에 도착한 순례자만 받는다. 츠야도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자.



이번주 신간은… 〈불교는 왜 진실인가〉 로버트 라이트 지음/마음친구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진화심리학에 관한 로버트 라이트의 기념비적 저작인 〈도덕적 동물〉(1994)서 시작해 그 스스로 명상 수행을 실천하면서 세계의 명상가, 과학자와 교류한 과학적이고 영적 여정의 정점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불교를 종교적 신앙이 아닌 심리학과 철학, 과학 등 합리적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는 이, 명상이 어떻게 우리를 삶의 미망과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이를 위한 책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6~2/1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정진 2 (고통을 이겨내는 힘)	지광스님	능인출판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성전스님	마음의숲
3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8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	일묵스님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설봉어록 (운문종과 법안종의 사상적 원류)	청두종인	담앤북스
5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10	불교는 왜 진실인가	로버트 라이트	마음친구

"선의 핵심… 가둔 나를 열고 갇힌 나를 석방하는 것"



3일만에 깨치는 야포 禪
석호 지음/연화 펴냄/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4살에 동화사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 책의 저자 석호 스님은 대강백 학봉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전수받고 '이뭐꼬' 화두 정진을 해왔다.

3일만에 깨치는 야포 선?

제목을 보니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지례 경계심이 든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고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내 고개가 끄덕여 진다. 3일이란 숫자적 외침은 수행의 시작과 중간, 끝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하라는 저자의 배려이다. 또한 '야포'란 저자가 사는 통영 욕지도의 동네 이름이다. 지명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흥미롭다. '야포'의 원래 지명이 '불무개'인데, 저자는 엉뚱하게도 '불무개'서 다른 의미를 끄집어 냈다. 한자를 붙여 불(佛) 무(無) 개(開)로 해석한 것이다. 이 말은 '부처가 없으면 열린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불무개'는 내가 법좌에 올라 자주 설하던 말이자 평소 법을 물으러 오는 이에게 내어 주는 주요지침"이라며 "이 표지가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운명처럼 그때 알아차렸다"고 소개한다.

24살에 동화사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 책의 저자 석호 스님은 대강백 학봉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전수받고 '이뭐꼬' 화두 정진을 해왔다. 특히 대구 경북 일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며 '작은 기적' '하늘다이아몬드' 등 5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2년전인 2017년에는 남해안 통영의 먼 섬 욕지도 토굴로 거처를 옮겨 깨달음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저자의 30여년 수행 경험이 오롯이 녹아있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지침서이다. 스님은 선의 핵심을 가두고 있는 나를 열고 갇힌 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를 가두고 닫는 존재를 가린 그 무엇은 다름 아닌 각자의 교육, 습관, 환경 등에 길들어진 아집"이라며 "열려야 할 곳은 열게 하고 닫혀야 할 곳은 닫게 만들며, 구부려야 할 곳은 구부러지게, 퍼져야 할 곳은 퍼지도록 차별을 두지 않는 존재의 활동이 내 자신을 열리게 만든다"고 소개한다.

'야포', 저자가 사는 욕지도 동네명
준비, 구성, 수확 등 행법 체계화
간화선과 묵조선 장점만 결합시켜

책은 주제에 비하면 무겁지 않다. 책은 깨달음이란 〈왜?〉라는 의심서 시작해 〈아하!〉라는 느낌으로 답을 얻게 구성됐다. 여기서 그 답은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원동력이 되지만 일상서 자기 역할을 잃어 버리면 깨쳤다고 해도 완성된 깨달음은 아니라는게 스님의 주장이다. 그 예로 스님은 말한다.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 전법을 포기하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면 부처님의 위대함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석호 스님은 '깨닫기는 쉽지만, 깨달음의 완성이 어려울 뿐'이라며 책 속에서 깨닫는 법과 상태, 깨달은 후의 조치인 보림, 그리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법까지 친절히 설명해 놓았다. 너무 친절해서 어긋날 수 있다며 자못 염려하는 스님은 "깨달음은 이성적 이해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성의 번쩍임, 즉 직관만 사용될 뿐이므로 스스로의 경험으로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책 속에서 수차례 경고한다.

저자는 깨달음 방법인 '야포선'을 준비작업->구성작업->수확작업 등으로 나누어 행법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행법의 실행 항목인 내려놓기->아무것도 하지 않기->바라보기의 구체적 방법 및 경계를 여러 가지 재밌는 예화와 함께 하루하루 일정별로 기술해 놓았다. 스님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서 바로 깨달음을 얻은 교시가처럼 진지하게 행법대로만 실행하면 3일만에 분명히 깨치게 된다'고 스님은 말한다.

야포선 수행 개략을 말하면 간화선 장점인 열정과 묵조선 장점인 차분함을 결합한 것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에 집중해 감각과 그 대상은 물론 무의식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은 부처나 깨달음 등의 상대마저도 없애버리고 오롯이 '있는 그대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의 활동이 활발발(자유자재)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죽음이 된다며, 스님은 〈지금 바로 여기〉가 유토피아라는 깨달음 후의 활동방법인 '표시없는 표시'까지 제시하며 결론 맺고 있다. 마지막 제 3장 부터는 일정별 세부 지침을 전개해 놓았다.

'야포 선' 3일 행법은?

1일차 행법=〈내려놓기〉의 첩경은 '본래 무소유'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출가'라는 명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과 온종일 씨름해야 한다며 그 방법인 바른집중(사념 없애기, 좋은 마음가짐, 좋은 몸가짐)을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해 놓았다.

2일차 행법=〈아무것도 하지 않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명제의 성립에 대한 얘기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할 수는 없지만 도달 가능한 법을 여러 재미있는 예화를 곁들여 소개한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궁극적 자기 존재임을 조심스럽게 밝힌다.

3일차 행법=〈바라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도달한 선정 상태를 깨우는 '적정한 쇼크'의 순간을 직시함으로써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어 주객이 없는 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아하! 그렇구나〉라는 느낌으로 알게 된다며 추리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바라봄의 경로를 말한다. 그 〈바라보기〉는 다시 깨달음 후의 활동인 깨달음의 완성, 〈바라밀〉 과정에서도 쉼 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써, 깨달은 자와 중생의 같은 본성인 〈무구 무애 원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공경 비움 연민〉을 실천하게 하는 중심이 된다며 깨달음 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고 그런 활동도 활동이 아닌 '표시 없는 표시'를 이루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밝힌다.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의 생생한 원음 담은 불교 입문서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편찬/1만 5천원

가치관이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행동하고 보편적 자비를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책은 독자와 함께 이 질문을 공유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 삶과 죽음, 직업과 노동, 돈, 성, 생명, 생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음 다스리기, 슬기로운 언어생활, 잘 사는 법 등 현대인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제별로 나누어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기존의 불교 개론서들이 건조한 이론 설명에 치중하였다면,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가질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숫타니파타〉 〈맛지마 니까야〉 〈쌍윳따 니까야〉 〈디가 니까야〉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화엄경〉 〈법구경〉 〈법화경〉 〈금강경〉 〈전심법요〉 〈완릉록〉 〈마조록〉 등 적절한 경전과 선어록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함으로써 읽다 보면 자연스레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 무엇보다 입문자들이 쉬 접하기 어려운, 부처님과 여러 역대 선지식들의 생생한 원음을 담아냄으로써 독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숙고하며 실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미덕이다.

불교는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불자들이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보여줄뿐더러 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조계종 신도를 위한 불교대학의 필수교재로 기획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지니고 있으며, 신행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정의해준다. 타 종교와는 다른 불교만의 특징을 보여주며, 동시에 불교의 지향점과 신행관을 분명히 제시해줌으로써,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문젠 은 농선 대원 선사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원 선사님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을 때까지 정법만을 깨닫기를, 정법만을 말하기를, 정법만을 가르치기를 서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도서출판 문젠은 대원 선사님의 뜻에 따라 정법을 바르고 넓게 유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사님의 지도 하에 선사님이 역저하신 불교 경전, 선문들과 저술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이들, 더욱이 최상승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유초정맥줄 성불사 국제명상대선원 원경

전국 구매처

국제 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78 ☎ 031-534-3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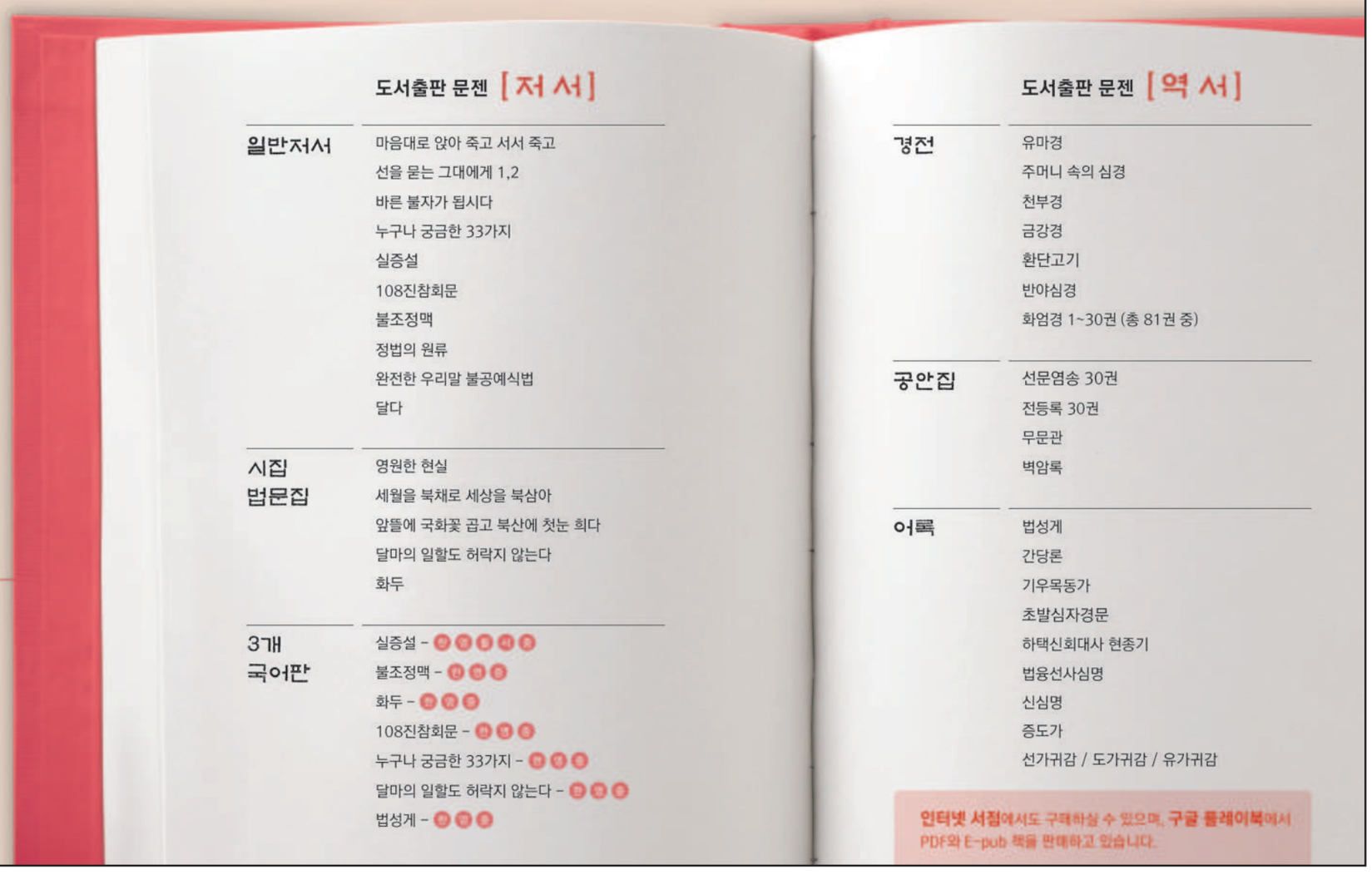
청도 정맥선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산 50번지 ☎ 010-4543-2460

부산 정맥선원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14번길 10 대륙코리아나 212호 ☎ 051-503-6460

포천 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23 ☎ 031-531-2433

광주 정맥선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광암길 34 ☎ 062-944-4088

해남 정맥선원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계길 132-98 중정마을 ☎ 010-8938-2438



도서출판 문젠 [저서]

일반저서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실증설
108진참회문
불조정맥
정법의 원류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달다

시집 법문집
영원한 현실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화두

3개 국어판
실증설 - 한 영 중 일 불
불조정맥 - 한 영 중
화두 - 한 영 중
108진참회문 - 한 영 중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 영 중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한 영 중
법성게 - 한 영 중

도서출판 문젠 [역서]

경전
유마경
주머니 속의 심경
천부경
금강경
환단고기
반야심경
화엄경 1~30권 (총 81권 중)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
무문관
벽암록

어록
법성게
간당론
기우목동가
초발심자경문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법융선사심명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 도가귀감 / 유가귀감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북에서 PDF와 E-pub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사 가치는 산지승원+예술 총체성

노재학 사진전 '한국산사의 단청문양과 사찰벽화의 美'
부산광역시청 2층 제3전시관 2월 11일~2월 17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산사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 부산본부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부산광역시청 2층 제3전시관에서 사진작가 노재학의 '한국산사의 단청문양과 사찰벽화의 美'를 개최한다. 한국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곳의 산사를 중심으로 한 5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국산사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2018년 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등재된 정식 명칭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이유에서 한국산사가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간직해옴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지승원 7곳의 진정성과 완전성도 높이 인정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보존대책을 주문했다.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뒷받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한국산사 등재 이유에서 보면 정식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산사에 내제된 문화의 고유성보다는 스님들이 현재까지 거주하며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의 '산지승원'에 주목했다. 문화적 가치보다는 현재적 삶과 수행도량에 더 주목한 것이다. 노 작가는 '산지승원'의 의미에만 주목한다면 자칫 한국산사의 가치를 '수행영역'으로 축소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산사의 진정한 가치는 건축, 종교, 사회문화, 예술의 총체성에 있습니다. 특히 각 산사의 법당은 전통미술과 조형의 보고입니다. 불상과 불화, 벽화, 단청문양 불단, 닫집 등 한 시대 의 조형과 미술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예경의 공간이면서, 하나의 박물관이고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적 정밀실측조사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법당의 장엄세계에 대한 철학, 미학분야의 연구 활동은 분산적이고 미미합니다. 특히 한국 고유의 전통문양이 다양하

세계유산 7사찰 사진 50여 점
"법당천정, 단청 · 조형의 보고"
20여 년 전통사찰 장엄세계기록

게, 또 보편의 지속성으로 펼쳐져 있는 법당 천정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가깝습니다. 한국산사 법당의 천정은 단청문양과 조형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전시는 의미를 갖는다. 노 작가는 20여 년 동안 전국 전통사찰 법당의 장엄세계를 사진에 담아왔다. 한국산사 법당의 조형과 미술을 담은 그의 사진들은 한국산사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종교미술뿐만 아니라 전통문양, 도가의 길상, 유가의 태극, 호작도 같은 민화들까지 폭넓은 조형미술의 세계를 보여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공간에 이르기까지 전통문양과 전통색채의 아름다움을 낱낱이 보여주는 노 작가의 이번 전시는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산사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네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통도사 대웅전 천정문양.

△1부는 '산사의 美'다. 숲과 자연생태, 생명의 보고인 산사의 미학을 보여준다. 만화방초의 화원을 이룬 순천 선암사의 봄과 소백산맥의 능선을 무량수전 앞마당으로 끌어당긴 부석사의 차경안목을 볼 수 있다.

△2부는 '단청문양의 美'다. 자연의 꽃과 구름, 물고기, 추상의 에너지들을 모티프로 하여 기하문이나 관념의 이상형으로 정형화한 사찰천정의 다양한 문양들을 보여준다. 해남 미황사, 부안 내소사, 구례 천은사 등 서남해안지역 산사의 장엄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단청문양들을 보여준다.

△3부는 '사찰벽화의 美'다. 벽화의 중심엔 불교교의를 반영한 불화성격의 벽화가 중심에 있지만, 송학도, 고사인물도, 연꽃과 모란도, 악기 등 별지화도 풍부하게 나타난다. 민화의 원류격인 사찰벽화 속 호작도, 화조도, 어변성룡도 등은 한국미술의 흐름과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통도사 영산전과 명부전, 직지사 대웅전,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사찰벽화 등이 소개된다.

△4부는 '조형의 美'다. 한국산사의 법당에 보편적으로 조성한 꽃살문, 불단, 닫집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내소사 대웅보전과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꽃살문 등이 소개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전시실에서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순회전시도 추진 중이다.

노재학 사진작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1년 중 300여 일을 길 위에서 보낸다. 궁궐, 사찰 등 전통건축의 전통문양을 20여 년간 사진에 담고 있다. 2014년부터 현대불교신문에 '화엄의 꽃 절집천정', '그 절집의 빛', '한국산사의 장엄세계'를 연재했다. 저서로 〈한국산사의 단청세계 : 불교건축에 펼친 화엄의 빛-미술문화, 2019〉이 있다. (051)783-1209.

BTN,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방 찾아

2월 11일부터 봄 개편… 인문학 · 뇌과학 등 다채
홈페이지 · 모바일앱 리뉴얼도



BTN홈페이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봄의 문턱에서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한다.

BTN은 "오는 2월 11일부터 인문학 릴레이 특강부터 불교사 강의까지 다양한 내용과 포맷의 프로그램을 신설 · 방영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통(通)하는 불교, 행(行)하는 세상'을 방송 슬로건으로 정한 BTN은 이번 봄 개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의 지혜로 승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다수 제작 편성한다. 이외에도 명상, 인문학 강연 등 트랜드에 맞는 주제와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편성했다.

신규 방송프로그램으로는 △BTN 릴레이인문특강 지혜의 다락방(매주 월 11:30, 22:30) △장현갑 교수의 명상, 뇌를 바꾸다(매주 화 15:00, 23:20) △자현 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매주 목 13:00, 23:20) △BTN과 조계종 교육원이 함께하는 경전이야기(매주 화 9:30, 20:30) △동훈 스님의 염불이야기(매주 수 7:30, 16:00) △BTN신행이야기 가피(매주 금 13:00, 23:20) △우리절 우리스님(매주 수 14:00, 23:20) 등이다.

또한 봄 개편을 맞아 BTN뉴스도 강화된다. 뉴스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5분 늘어나 25분으로 편성되며, 밤 10시 뉴스가 신설돼 보다 다양한 뉴스로 자주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BTN뉴스에서는 율사 스님들을 만나 현 시대 계율의 의미와 실천 방안 등을 듣는 '계율, 한국불교를 말하다'가 새롭게 편성된다. 이와 더불어 자주 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용어를 쉽게 풀어주는 '불교용어 나들이'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이와함께 BTN은 최근 모바일 웹과 BTN앱 리뉴얼을 끝으로 1여 년간 진행한 자체 플랫폼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홈페이지 · 모바일 플랫폼 일원화를 통한 VOD 서비스 확장과 불자들을 위한 신행 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축 등으로 불교계 포털 플랫폼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일부 법문이나 교양강좌도 개편 이후 모바일과 BTN앱을 통해서 모두 시청이 가능해졌으며 VOD 콘텐츠 외의 신행 콘텐츠까지 새롭게 지원하면서 불자들의 스마트한 신행생활 진작이 가능해졌다.

지원되고 있는 신행 콘텐츠로는 하루 한번 명승들의 법문을 만나는 '오늘의 법문',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속 힐링을 위한 '마음울림', 불교설화나 전설을 다룬 '이야기 불교' 등이 있다. 앞으로 독경, 예불, 법문 등의 음성 콘텐츠와 접하기 어려운 법문강좌 콘텐츠 등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계 항일운동 모든 것 담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3.1운동 자료집 4종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3.1운동과 항일운동을 망라한 자료집이 잇달아 발간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최근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자료집〉 2권 · 3권 △호국불교사찰총서 〈진관사〉를 발간했다. 또한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7〉은 2월 중에 발간 ·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은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관련 연구논문들이 수록됐다. '의병전쟁기 불교계의 현실인식과 대응' 을 비롯해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일제하 조선불교청년회의 지회결성과 활동 △철원애국단 사건과 불교계 항일운동 △이고경의 삶과 독립운동, 만당 △통도사 승려 박민오의 생애와 활동 △김법린과 조선어학회 사건 △박광의 생애와 민족운동 등 총 8편의 논문이 담겼다.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자료집〉2권은 지난 2017년 자료집의 후속으로 잡지, 단행본 등에 대한 자료들이 망라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자료집은 불교 민족운동을 소개하고 정리한 잡지 · 단행본을 비롯해 선언서 · 비문 · 사적기 · 육필 원고 등을 집대성한 것" 이라며 "불교 민족운동의 다양한 내용과 성격을 담고 있는 비사, 단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집"이라고 설명했다.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자료집〉3권은 3.1운동 민족대표로 불교를 대표한 만해 스님, 용성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 해인사 · 동화사 · 표충사 · 신륵사 · 봉선사 · 용문사 · 송광사 · 통도사 등의 사찰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활약한 스님, 제주 법정사 무장항쟁의 주역, 의병 활동에 참여한 인물, 독립운동 자금 모연에 앞장선 인사 등 3.1운동과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의 판결문을 수집 · 번역한 자료집이다.

호국불교사찰총서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호국불교사찰총서 〈진관사〉는 불교계 3 · 1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진관사의 창건과 변동, 근현대기 독립운동과 백초월스님 등의 역사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진관사를 총체적으로 연구 · 조명했다.



3.1운동 100주년 결과물들
항일운동 연구 · 자료 등 망라
호국불교 자료집 지속 발간
오는 2월 27일 학술세미나도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7〉은 해인사 · 동화사 · 표충사 · 범어사 · 용문사 · 법주사 · 월정사 · 쌍계사 · 천은사 · 송광사 · 대흥사 · 불갑사 · 백양사 · 금산사가 소장하고 있는 승장, (도)총섭, 승통, 주지 등의 인신(印信)과 사명패(司命牌)를 수집 · 촬영하고 결과물들을 수록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호국불교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물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다룬 성과와 자료들이 집중 수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2월 27일 3.1운동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운동 사진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주사지 東 삼층석탑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1월 25일 지정예고
수종사 사리탑 보물로 지정
"전형적 통일신라 후기 석탑 우수한 조형성으로 가치 높아"


충남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 · 지정 예고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의 전경.

충남도 유형문화재였던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보물로 승격되는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성주사는 847년 낭혜화상(800~888)이 개창해 17세기까지 사찰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후면에 다른 2기의 석탑과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가람배치는 전례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배면의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추가로 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당 배면의 3기의 석탑 중 서 · 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으며, 이번 예고에 따라 동 삼층석탑도 보물로 승격될 예정이다.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됐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 · 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됐다.

문화재청은 "동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였던 '남양주 수종사 부도' 를 예고기간을 거쳐 보물 제2013호로 승격 · 지정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사리탑이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2단을 이루는 기단 위에 둥근 구형의 탑신을 올리고 옥개석과 머리장식이 얹혔다. 낙수면의 음각을 통해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위한 사리탑임이 확인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학술 Focus

'불교적 이상사회' 주제 학술논문 공모

한국불교학회 춘계대회 논문 모집… 2월 9일까지

2월 14일 동계워크숍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가 불교적 이상사회를 모색하는 춘계학술대회 발표 학술논문을 모집한다.

한국불교학회는 "'사바정토- 불교적 이상사회(Ideal Society)는 가능한가' 를 주제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연구 논문에 대한 발표 신청서를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한국불교학회의 춘계학술대회는 5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다.

이상사회에 대한 논문 주제는 △불교와 대안적 경제시스템 △불교와 대안적 정치시스템 △현대사회의 '고' 와 불교적 해결 △불교신행의 미래 △불교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제시됐다. 참여 희망자는 발표계획서 양식에 맞춰 제목 · 연구목적 · 목차 · 초록을 작성해 한국불교학회 메일(hanbulhak@daum.net)로 보내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발표 논문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발표 논문을 작성해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모색하는 학술 잔치를 개최코자 한다"면서 "불교교학 또는 불교사회학의 관점에서 이상사회론을 제시하는 논문을 모집한다. 석사학위자 이상이면 누구나 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진이나 신진을 막론하고 모든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 을 주제로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2019년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동계워크숍마다 불교학 관련 저술의 저자를 초청해 저서의 내용과 저술 동기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의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와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이 논단에 오른다. 토론자로는 김은영(동국대) · 조병활(성철사상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물리학' 템플스테이 강좌

밝은사람들 · 불교과학아카데미, 함양 약천사서 개최

불교와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불교과학아카데미(대표 김성구)는 공동으로 3월 14~17일을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를 집중 강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는 함양 약천사에서 진행되며, 강의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의 저자인 김성구 불교과학아카데미 대표가 맡는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김성구 대표가 3박4일 동안 1시간 30분씩 7차례 강의 및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매일 새벽예불, 사시예불, 저녁예불에 참여하며, 좌선과 행선, 영화감상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좌는 교재를 바탕으로 연기법, 공과 중도 사상, 선(禪)의 의미를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설하고, 복잡계이론 및 인지과학의 내용을 보충해 불교의 가르침이 왜 진실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이색 강좌 템플스테이는 연중 이뤄진다. 제1차에 이어 △제2차 5월16~19일 △제3차 7월18~21일 △제4차 8월15~18일 △제5차 10월17~20일 △제6차 12월19~22일에 각각 진행된다.

각 차마다 5~15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자율적으로 보시한다. 신청은 '불교과학아카데미' (cafe.daum.net/healingwell)나 전화(010-2214-3083, 010-2215-3083)로도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www.drlouie.co.kr
Dr LOUIE
Premium, Natural
Skin Care Brand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제품에서 시작한 닥터루이
화장품은 가족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사명 아래
가장 안전하고 좋은 원료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제품 포장용기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인체에 무해하고 더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상의 포뮬러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1 피부탄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
2 넓은 모공으로 고민하는 분
3 피부 속 당김을 느끼는 분
4 밝고 생기있는 피부톤을 원하는 분
5 민감한 피부 때문에 쉽게 화장품을 바꾸지 못하는 분
Revitalizing All-in-One Essence
Revitalizing All-in-One Essence Light
Revitalizing All-in-One Essence Oil Free
REVITALIZING ALL-IN-ONE ESSENCE
100 g
(주)루이코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186 1층
Tel. 051-532-0808
HP. 010-7556-5538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③ 입춘(立春)
톳연근찜 · 두부소박이 · 콩나물잡채

'절기의 시작' 고소함 찾아서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시작하니 큰 길운을 맞이하고 좋은 일과 경사로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축문이다. 얼마나 추운겨울을 지나왔기에 속담은 더 거창하다. 오죽하면 "입춘축 붙이는 일이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

설날 앞두고 입춘이다. 가뜩이나 그믐날 할 일도 많은데 삼재풀이 한다고 불공도 덧붙여하는 날이다. 왜 하필 삼재풀이는 입춘 아니면 안 통한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미루어보건대 절기상 가장 첫날이니 만사형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지리산자락 금수암 도량에는 아직 복수초가 나올 자리에 낙엽만 쌓여있다. 아무래도 우수가 되어야 나올 성 싶다. 입춘에 먹는 절기음식을 보자니 아직도 김장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묵은나물과 더불어 새 맛을 더 기다려야 할 참이다.

말려둔 시래기를 잘 삶아서 얇은 막을 벗겨내고 된장과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 채수를 넣고 자박하게 지져내면 추위를 녹이는 맛이 된다. 잘 말려둔 건톳 역시 좋은 식재료다. 녹미채인 해조류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 갑상선 질환에는 조심해야 하지만 이 음식 역시 연근과 만나면 지루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연근은 그저 강판에 갈아서 체에 받쳐서 적당히 촉촉한 식감을 주게 하고, 소금과 참기름 조금 넣고 불린 톳과 치대서 작은 뭉치로 만들어


톳연근찜


두부소박이


콩나물 잡채

찜기에 쪄내어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단짠단짠' 맛을 준다.

설날 앞두고 미리 해놓는 두부 역시 입춘에 먹는 음식이다. 마른표고버섯을 불려서 잘게 다진 다음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한 후 팬에 덖어 만드는 두부소박이는 간단하면서도 놀라움을 주는 음식이다. 전통사찰음식에는 튀김음식이 당연히 없었지만 시대변천사 따라 절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에는 수삼을 튀겨 내거나 두부소박이를 요리처럼 만들어 대접하는 시간이 세월만큼 켜켜이 쌓여있다.

절에서 만드는 잡채는 초심자들에게 번거로운 음식 중 하나다. 그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콩나물 잡채다. 겨울에 따뜻한 온기로 콩나물시루를 들여놓고 시루에서 내려온 물을 고스란히 계속 부어서 키우는 콩나물은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놓치고 만다. 일주일 자란 콩나물의 생동감을 손끝으로 느끼는 순간은 첫손으로 뽑아 올린 콩나물의 미끈한 자태다. 잔뿌리 하나 없이 자란 예쁜 콩나물로 시원하고 맑은 콩나물국을 만들어 먹는 순간은 두고두고 좋은 추억이다. 잘 자란 콩나물은 한 번에 다 뽑아서 먹기보다 먹을 양만 한 줌씩 조심스레 뽑자. 겨울철 음식의 식재료로 부단히 사용돼온 정겨운 콩나물! 이제는 그 분주함조차 쉬고 싶고 사소한 일에 지나친 열정도 과하다 싶어서 그저 공장에서 길러 나온 콩나물이라도 GMO만 아니면 사들고 온다.

미국의 경제학자 칼스미스가 "미국이 50년 후 미국을 팔아도 GMO의 폐해를 다 보상하기 어렵다"고 한 말을 되새겨본다. 이제 우리의 밥상에서 걷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가장 흔하게 즐겨먹는 두부 역시 GMO 콩으로 만드는 게 다반사인 세상이다. 분별심 없이 먹어야 하지만 굳이 국산콩이니 유기농이니 따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은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다.

톳연근찜

마른 톳 10g, 연근 300g, 참기름 1t, 소금 ⅓t

1. 마른 톳을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주무르면서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린다.
2. 연근은 강판에 갈아서 체에 받쳐 건더기를 준비한다.
3. 마른 톳을 물기를 꼭 짜서 자른다.
4. 갈은 연근에 톳과 참기름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한입크기로 뭉쳐서 김이 오른 찜기에 찐다.

두부소박이

두부 1모, 건표고버섯 3개, 집간장 ½T, 전분 ½컵, 찹쌀가루 ½컵, 소금약간, 후추약간, 참기름 1t, 튀김용 식용유 적당량

1. 두부는 3*5㎝, 두께 0.3㎝정도로 썰어서 소금과 후추를 뿌린다.
2.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후 잘게 다진다.
3. 다진 버섯을 물기를 제거하고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 후 살짝 덖는다.
4. 두부 위에 준비한 표고버섯을 얹어서 잘 펴주고 또 하나의 두부를 맞대어 준비한다.
5. 준비한 두부를 전분을 묻히고 다시 찹쌀가루를 묻힌 후 160℃에서 튀긴다.

콩나물 잡채

콩나물 400g, 당면 300g, 마른표고버섯 5개, 사각유부(소) 10개,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소금약간, 참기름 약간, 전체양념(고춧가루1T, 참기름1T, 소금약간), 당면양념(물½컵, 집간장3T, 참기름1T)

1. 콩나물은 콩깍지와 긴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다.
냄비에 물 ½컵, 참기름 1T을 넣고 끓이다가 끓으면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익힌다. 아삭할 정도로 익으면 콩나물만 건져 볼에 담아 식힌다.
2. 당면은 불리지 않고 바로 끓는 물에 삶아 반투명해지면 찬물에 헹궈 채반에 담아 물기를 뺀다. 팬에 물, 집간장, 참기름을 넣고 끓으면 당면을 넣고 20분 정도 충분히 익힌다.
3. 마른표고버섯은 찬물에 불려 물기를 짠 뒤 채 썬다. 그리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한 뒤 팬에 익는다.
4. 유부는 끓는 물에 두 번 데치고 물기를 짠 후 채 썰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한 뒤 팬에 익는다.
5. 청 ·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채 썬다.
6. 준비한 콩나물, 당면, 표고버섯, 유부, 청 · 홍고추,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버무린 뒤 소금으로 간한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③ 안구건조증

화기 돋우는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주원인
〈火氣〉

눈에 반해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도 세월은 어쩔 수 없다. 맑고 깨끗했던 공막의 색도 탁해지고, 눈의 형태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액체인 방수 속에도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모기나 날파리가 어른거리는 듯 느껴진다 하여 붙여진 '비문증(飛蚊症)'이 생기기도 하고, 안구건조가 심해지기도 한다. 심하면 시력을 잃게 하는 '황반변성'이 생기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사람의 노화는 수(水)의 기운이 마르고, 단전에 모여 있어야 하는 화기(火氣)가 병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라 인식한다. 이러한 노화과정에서 간(肝)은 제 기능을 잃기 쉬우며, 간의 정혈(精血)이 모여 작용하는 눈에 노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내부의 건조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메마른 조건 역시 눈에 병리적 환경을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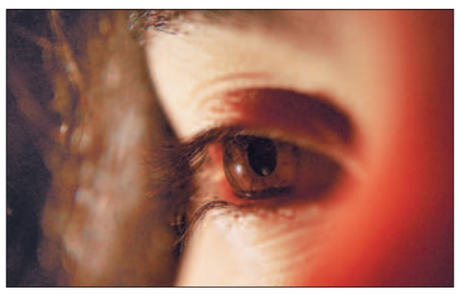
기후 변화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하여 황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들은 많지만 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현저하다. 특히 눈이 메마르고 뻑뻑해져 불편을 겪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황사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안구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안구가 건조해져 일련의 불편이 생기는 기능적인 질환이다. 눈물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증발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눈물의 조성 성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 원인이 된다.

무엇이 눈물샘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사용으로 대표되는 눈의 과로나 혹사,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건조한 환경에서의 생활, 눈물샘의 염증 등이 원인이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구와 점막의 건조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쇼그렌증후군 같은 전신질환도 있다.

쇼그렌증후군은 침샘과 눈물샘 등 외분비샘에 림프구가 침윤되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안구 건조와 함께 침이 부족하여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를 특징으로 한다. 절반 정도의 환자는 외분비샘의 기능장애뿐 아니라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관절염이나 손이 차갑고 창백해지는 레이노 현상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쇼그렌증후군만으로 증상이 발현되면 '일차성 쇼그렌증후군'이라고 하고,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등의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나면 '이차성 쇼그렌증후군'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구의 건조감이 느껴진다면 입마름은 없는지 다른 관절의 문제는 없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 모니터 · 커피 등 줄여야
명상 · 참선 등 마음공부 도움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쉽게 피로하여 책이나 작은 물건을 보기가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눈을 뜨는 게 힘들어 눈을 감고 있어야 편하게 된다. 안구가 충혈되거나, 차고 건조한 바람을 쐬면 도리어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한다. 나중에는 눈이 나빠지기도 한다.

안구건조증이 지속되면 두통과 전신적 피로가 잘 나타난다. 안구 주변과 옆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뒷머리까지 통증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나 학습은 물론 생활 전반에 불편을 유발한다. 눈을 비비거나 찡그리는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 이마와 눈 주변에 주름을 늘게 한다.

안구건조증은 증상을 위주로 진단하지만 확진을 위해 각막과 결막을 확대하여 관찰하고, 눈물의 분비량을 측정하여 진단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눈에 대한 진찰과 함께 맥과 혀에 나타난 조(燥)와 화(火)의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몸의 화기(火氣)를 북돋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식 및 생활환경에 대해 자세히 문진을 하게 된다.

치료 단계에서는, 염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염증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게 되고, 다른 원인 질환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우선한다. 물론 눈물의 생성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인공 누액을 보충하게 된다.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와 생활의 변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명상이나 참선 같은 마음공부를 먼저 권하게 된다. 그리고 사물탕과 육미지황탕 등 당귀와 숙지황을 포함하고 있어 정혈(精血)을 생성시키는 한약을 투여하고, 눈 주변의 경혈 및 간과 눈의 기능을 조절하는 경락에 분포하는 경혈에 침치료를 하게 된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발등 쪽에 있는 '태충'이라는 경혈에 침치료를 하면 금방 눈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특히 가볍거나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안구건조증은 잘 호전되기도 한다.

자가치료 방법으로는 안와주변 부위의 맛사지와 온습포를 우선적으로 권할 수 있다. 눈을 감고 깨끗하게 씻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안와주변을 1cm 간격으로 가볍게 지압하거나 온습포를 이용하여 눈과 주변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구기자와 대추를 함께 달여 차로 마시는 것은 카페인이 들어 안구건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커피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여러 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안구건조증은 잘 낫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오랜 시간의 독서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온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아야 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불어오는 황사나 삶의 스트레스를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만드는 내면의 화기(火氣)는 내려놓을 수 있다. 마음의 화기는 간의 풍기(風氣)를 일으키고 혈을 메마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눈의 정혈과 진액을 메마르게 한다. 어릴 적의 맑고 촉촉한 눈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거울을 닦고 화기를 식힌다면 눈의 메마름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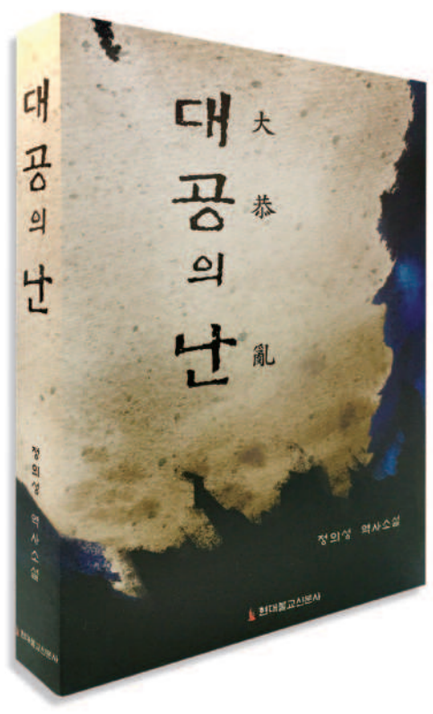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병원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